

2020
Nowon
Moonlight
Walk

누
운
달
로
빛
산
책
7

어쩌다
온전히 나를 혼자 있게 하는 시간.
멀리서 조용하게, 은은하게 항상 나를 지켜봐 주었던 그가
달님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서로를 배려하는
달빛일지 모른다.





노원의 정체성을 담은 노원달빛산책,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문화축제 모델이 되기를 바라며

2020년 10월 23일, 노원달빛산책 개막 점등식을 하는 순간의 가슴 먹먹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 노원구는 올 한 해, 코로나19가 활취고 간 구민의 마음을 보듬는 문화행사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과연 코로나 상황에 안전한 힐링 문화프로젝트는 무엇일까 고심하면서 기획한 것이 ‘노원달빛산책’입니다. 당현천 구간에서 등 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으나 우리 구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모범 사례와 함께 ‘잔잔한 예술 체험이었다, 근래에 보기 드문 야외전시 행사였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시행한 이번 ‘노원달빛산책’은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문화축제 모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기획부터 진행까지 수고해 준 전영일 예술감독과 주요 스태프들, 문화재단 임직원, 구청 공무원, 운영사 등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새로운 ‘노원달빛산책’으로 10월초부터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개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노원의 새로운 문화브랜드, 노원달빛산책

노원구 의회는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시행되도록 독려했고 10월 말 ‘노원달빛산책’이 시작된 뒤에 여러 차례 현장을 둘러 보았습니다. 짧지 않은 24일 동안 ‘노원달빛산책’은 우리 구민들에게 코로나를 이겨낼 힐링과 위로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일상의 삶이 더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올해는 문화의 몫이 더 커 보입니다.

이렇게 구민들에게 올해 가장 큰 즐거움과 여유를 준 문화 프로젝트 중 하나가 바로 ‘노원달빛산책’입니다. 노원구의 새로운 문화 브랜드로, 더 잘 키워나간다면 서울시에서 도드라진 문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노원달빛산책’에 다녀간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글이나 블로그를 보면서, 문화 예술이 주는 기쁨이 코로나 시대에 더 필요함을 느낍니다.

언제나 우리 구민들의 문화생활에 관심이 큰 노원구 의회는 내년에도 ‘노원달빛산책’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올해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노원구의회 의장 최 윤 남

“가을에 만나는 힐링 노원의 상징, 노원달빛산책”

노원문화재단은 2020년 코로나19를 만나 구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새로운 만남을 시도해 왔습니다. ‘힐링 자동차극장’은 3월말과 추석 연휴기간에 두 차례 하며 5,000여명의 구민들이 야외영화 상영에 함께 하셨고, ‘서브웨이 갤러리’를 통하여 노원역, 태릉입구역을 오가는 30만명 이상의 구민들이 인상파 화가와 세계 유명 작가의 작품에 눈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버스킹 콘서트’로 노원구 공원과 역 광장에서 다양한 공연을 올렸습니다. 많은 축제와 문화행사가 취소되면서, 그 재원으로 새로운 문화 프로젝트를 심 없이 추진해왔습니다.

올해 이러한 ‘힐링 문화 프로젝트’의 정점이 바로 ‘노원달빛산책’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4월말에 개최할 노원등축제를 무려 다섯 번이나 미루고 다듬어 10월말에 새로운 이름 ‘달빛산책’으로 하게 될 때까지 많은 스태프들과 함께 문화재단은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250개가 넘는 구민들의 자발적인 블로그 모음을 보면서, 우리 구민들에게 참 힐링이 되고 위로가 되는 문화행사를 했구나, 하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한없는 책임감으로 되돌아 보게 됩니다.

2020년 늦가을의 ‘노원달빛산책’은 문화도시 노원의 현단계와 구민들의 높은 문화 수준을 보여준 좋은 사례였습니다. 저희 노원문화재단은 늘 구민의 삶 속에 꼭 필요한 새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새로운 ‘노원달빛산책’으로 뵙겠습니다.



노원문화재단 이사장 김 승 국



2020 Nowon Moonlight Walk



작품설치 장소

- 1. 풍류/초가집
- 2. 생사
- 3. 쥐불놀이
- 4. 정령의 빛
- 5. 촛불
- 6. 빛에 머물다
- 7. 두 개의 달
- 8. 소원
- 9. 별을 구한 소녀
- 10. 유성우
- 11. 달빛산책
- 12. 조화/유영
- 13. 반딧불
- 14. 동물친구들
- 15. 우주왕복선
- 16. 보름달
- 17. 기원
- 18. 달그림자-보라리 작가
- 19. 달춤-서성봉 작가
- 20. 푸른 달의 노래-인송자 작가
- 21. 월강(月江)소나타-박건재 작가
- 22. 만월(滿月)-박민섭 작가
- 23. 길(Road)-송필 작가
- 24. 결월(缺月)-김권룡 작가
- 25. 보름달
- 26. 하얀 소
- 27. 달빛소굴
- 28. 추억의 달
- 29. 유영
- 30. 시화전

- 31. 격랑 I, II
- 32. 푸른 나무
- 33. 주마등
- 34. 두 개의 달
- 35. 달/달과 대화하는 우주인
- 36. 도시2
- 37. 노원 타임슬립
- 38. 도시1
- 39. 두 개의 달
- 40. 두 개의 달
- 41. 도시3
- 42. 천지인
- 43. 내가 아는 너

10.23. PM 6:00

노원달빛산책 오픈

10.26. PM 4:00

노원달빛산책 세미나
도시 야간 예술축제의 새로운 가능성

사회: 한상정 (인천대학교 교수)
노원달빛의 새로운 시도
(전영일, 노원달빛산책 예술감독)

빛조각의 특징과 오픈공간에서의 전시
(박천남 큐레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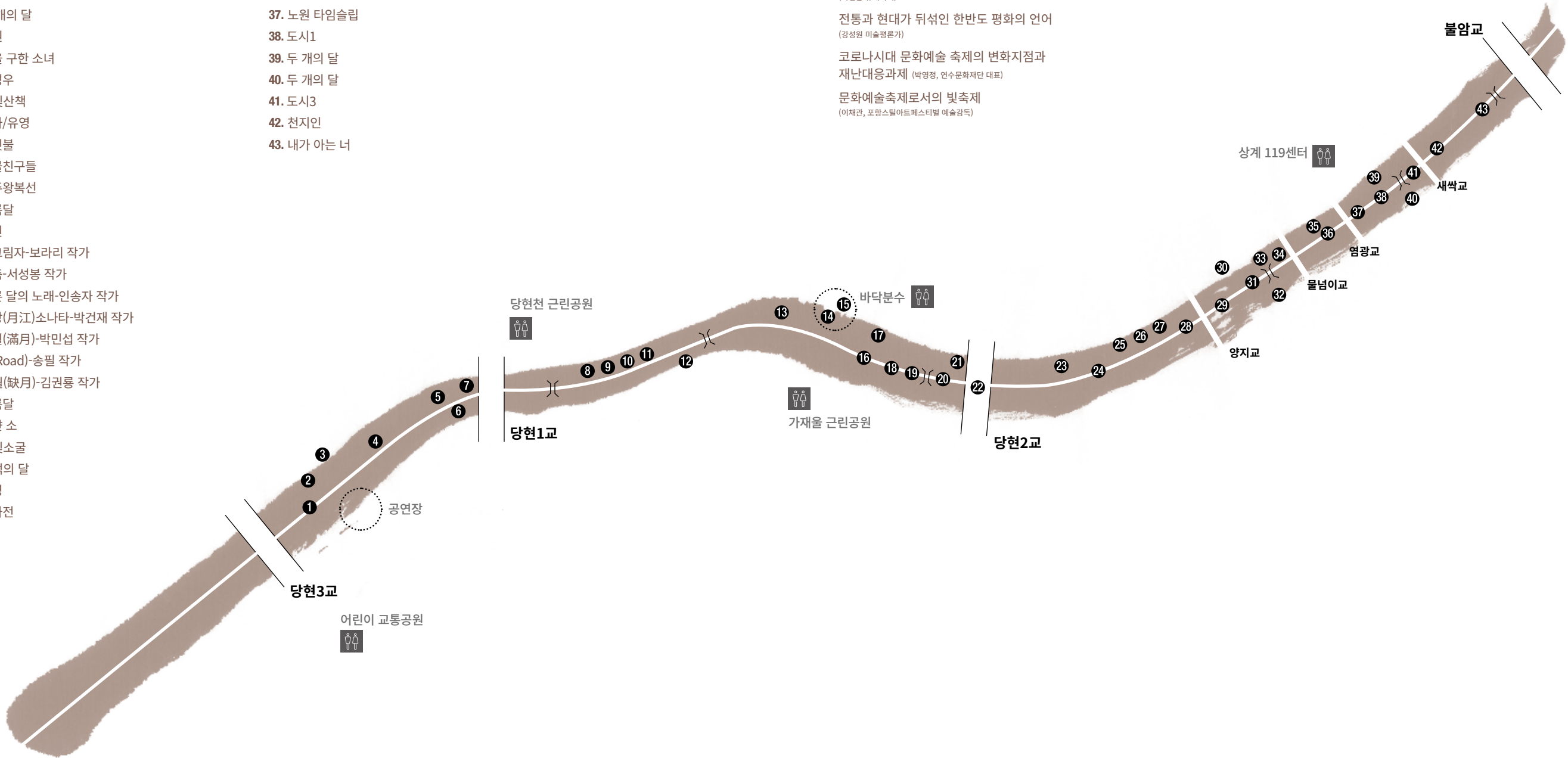
전통과 현대가 뒤섞인 한반도 평화의 언어
(강성원 미술평론가)

코로나시대 문화예술 축제의 변화지점과
재난대응과제 (박영정, 연수문화재단 대표)

문화예술축제로서의 빛축제
(이재관,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예술감독)

구민해설사 프로그램 및 작가와의 대화

www.nowonarts.kr



Part 1

작 품 소 개

- 020__생사(生死)
- 022__정령의 빛
- 024__촛불
- 026__소원
- 028__별을 구한 소녀
- 030__반딧불
- 032__달빛소굴
- 036__추억의 달
- 038__유영
- 040__조화
- 042__유성우
- 044__취불놀이
- 046__푸른 나무
- 048__격랑 I , II
- 052__도시1
- 054__천지인
- 056__내가 아는 너
- 058__도시2
- 059__도시3
- 060__풍류
- 062__초가집
- 063__하얀소
- 064__빛 에 머물다
- 066__두개의 달
- 070__달빛산책
- 072__보름달
- 074__기원
- 078__달/달과 대화하는 우주인
- 080__우주왕복선
- 082__동물친구들
- 084__파사드 다리
- 088__노원 타임슬립

Part 2

특 별 전 작 품 소 개

- 092__달그림자
- 094__달춤
- 096__푸른 달의 노래
- 098__월강(月江) 소나타
- 100__만월(滿月)
- 102__길(Road)
- 104__결월(缺月)
- 106__기획글_일곱 개의 달, 두 개의 다리

Part 3

달 빛 산 책

- 118__초대글_코로나19 어둠을 뚫고 나온 빛의 축제
- 122__개막식
- 124__점등식
- 126__도슨트 현장교육
- 128__거리두기 방역 퍼포먼스
- 130__구민해설사
- 132__작가와와 대화
- 136__시화전

Part 4

세 미 나

- 142__성공적인 ‘노원달빛산책’의 새로운 가능성이 모색되는 장(場)이 되길
- 144__노원달빛산책의 새로운 시도
- 147__빛 조각의 특징과 열린 공간에서의 전시
- 153__전통과 현대가 뒤섞인 한반도 평화의 언어
- 162__포스트 코로나 시대 축제와 문화
- 166__문화예술축제로서의 빛 축제

Part 5

사 람 · 사 람 들

- 178__작품설치
- 180__구민해설사가 말한다
- 182__2020 노원달빛산책과 함께한 사람들

2020
Nowon
Moonlight
Walk

작
품
소
개
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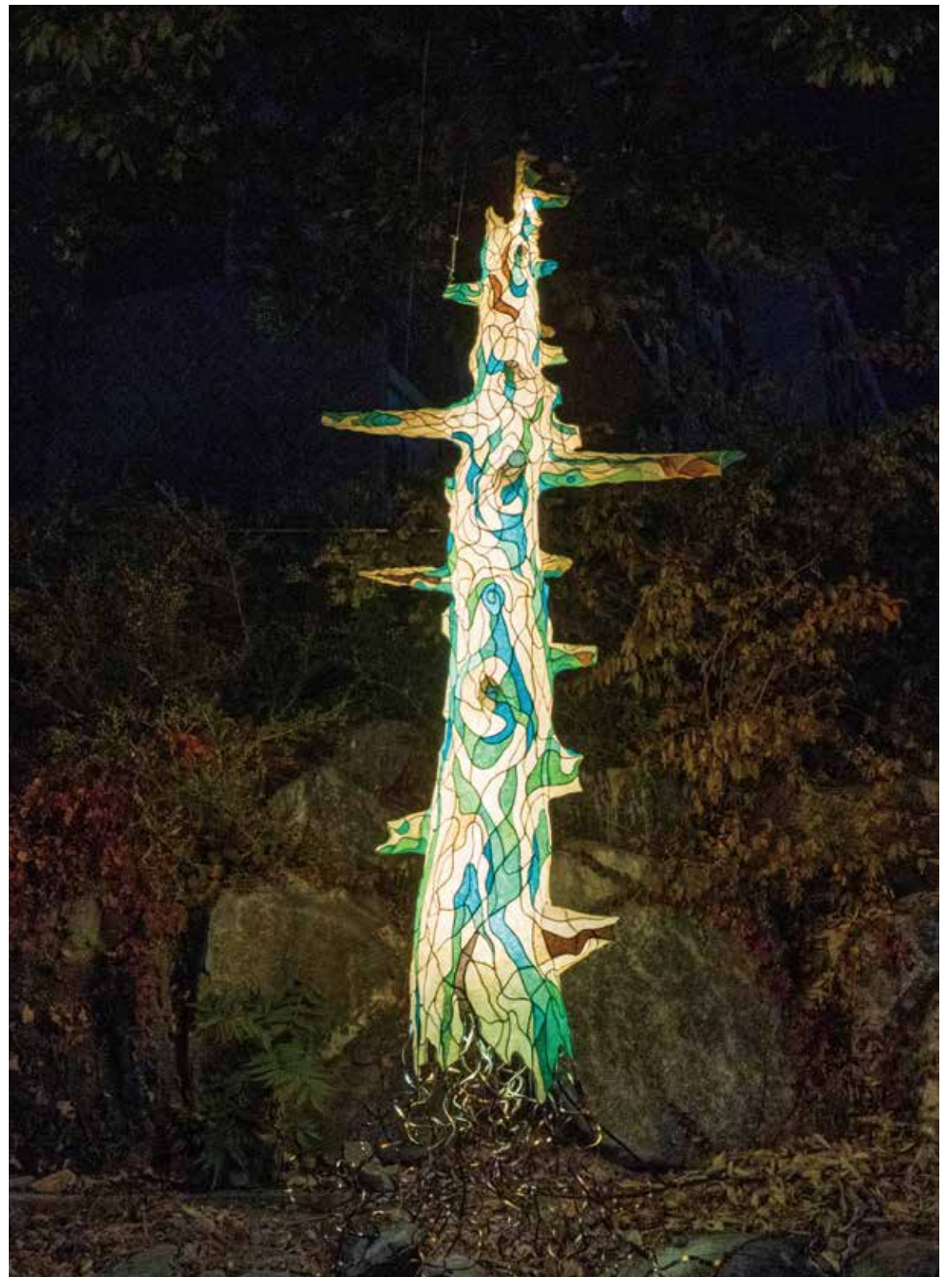


생사(生死)

제주도의 구상나무가 사라져 가고 있다. 구상나무가 멸종 위기를 맞이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멸종 위기종들과 마찬가지로 인류 문명의 발전에 따른 환경변화 때문일 것이다. 이 작품은 구상나무의 형상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빼만 앙상하게 남은 구상나무는 죽음(死)을 의미하며, 곳곳의 푸른 부분들은 생명(生)을 상징한다.

이 작품의 제목인 생사(生死)란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이 탄생과 죽음의 윤회를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 갈 수는 없겠지만, 삶에서 얻는 깨달음의 정도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작가는 언젠가 맞이할 죽음 앞에서 삶을 더 의미 있게 살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한다.

전영일 | Jeon Young-ill, 2700x1000x1050mm, 스틸와이어, 한지, 조명, 2019



10.23—11.15



정령의 빛

<정령의 빛>은 당현천의 갈대숲을 이용하여
빛에 생명을 불어넣은 설치 작품이다.

반딧불처럼 반짝이는 빛은 관객처럼 천변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유유히 산책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빛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관람객과 함께 당현천 산책을 즐기는 것이라고
봐주었으면 좋겠다.



촛불

촛불은 어둠을 밝힌다는 것에서 희망을 의미하며, 자신을 태워가며 빛을 낸다는 점에서는 세상을 밝히는 숭고한 희생을 의미하기에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촛불에 작은 소망들을 모아 기도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작품을 보며 여러분의 작은 소원들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전영일 | Jeon Young-ill, 1500x1500x2400mm(1점) / 800x800x1200mm(10점)
가변설치, 스틸와이어, 스테인리스스틸, 한지, 조명, 2016

10.23—11.15

• 25



전영일 | Jeon Young-ill, 달: 3000x4000x3000mm / 아이를 업은 어머니: 950x900x1200mm,
가변설치, 스테인리스스틸, 스틸와이어, 한지, 조명, 2020



소원

<소원>은 어머니가 철부지 동생을 업고 달을 바라보는 장면을 연출한 것으로 대형 달 설치작품과 어린아이를 업고 있는 어머니 형상이 연결되며 하나의 서사를 만들어 낸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고, ‘하늘로 가는 계단’이 땅에 있는 인간과 하늘의 달을 연결한다.

70년 전에 일어난 한국전쟁에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고되고 힘든 시기를 거쳐 왔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기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발전되고 윤택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냈다. 그 어려웠던 시절은 우리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가고 있지만 그 긴 세월 동안 그리고 그전에도 수천, 수 만년 동안 빛을 비추며 한반도를 지켜보던 달의 기억 속에는 우리가 잊었거나 잊고 싶은 일까지도 변함없이 간직되어 있을 것이다. 그 시절 아이를 업고 있는 어머니는 달에게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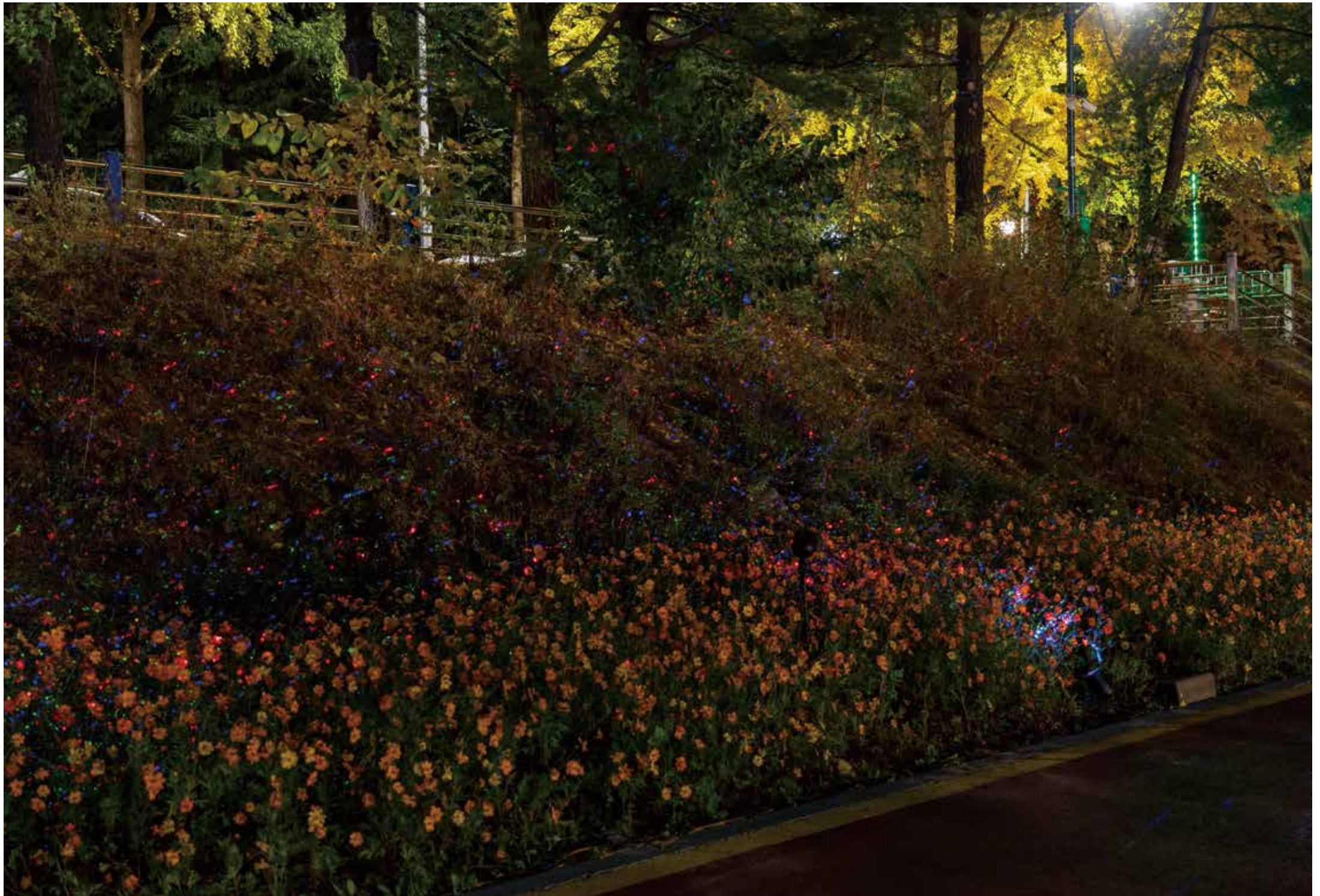
별을 구한 소녀

2020년 마스크 부족으로 들쭉이던 시기에 노원구에는 국제적 주목을 받으며 수제 마스크 열풍을 일으킨 ‘마스크 의병단’이 있었다. 주로 주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진 자원봉사단은 봉사와 희생이 공동체의 안녕을 가져오며 극복하지 못할 전염병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작가는 마스크 의병단의 숭고한 열정에 영감을 받아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다.

<별을 구한 소녀>는 소녀가 환란 속에서 우리가 사는 ‘지구별’을 낚아내는 모습이자 우리의 소원을 간직하고 있는 달을 구해내는 모습이기도 하다. 달빛 그윽한 가을밤에 당현천에서 만나는 마스크 의병단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아름다운 봉사정신을 되새길 수 있길 바란다.



전영일 | Jeon Young-ill,
달: 지름 800mm / 소녀: 900x1400x1750mm, 스틸와이어, 스테인리스스틸, 부직포, 한지, 조명, 2020



반딧불

예쁜 가든레이저를 이용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빛으로 사랑을 확인하고
나누는 반딧불이를 형상화한 작업으로
당현천으로 밤마실 나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려 합니다.

달빛소굴

이 나무 움막은 우리를 신비로운 태고의 세계로 데리고 간다.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 움막은 태고의 인류가 비와 바람을 막기 위해 지은 것이었지만 사람들이 떠난 빈 움막에 자연에 반사된 달빛이 모여든다. 조용히 흐르는 당현천에 서있는 나무 움막에 모인 달빛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언어로 서로 교신하고 있다. 움막 속에는 어쩌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빛의 정령들이 소곤거리며 인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추억의 달

형형색색 다양한 빛으로 구성된 LED볼 140개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모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환하고 밝은 보름달을 보시면서 저마다 아름다운 미래의 모습을 마음 속에 그려보세요.



유영

전통적으로 잉어는 임신출세, 다산, 풍요의 의미를 지닌다. 임신출세를 위해 통과하는 관문인 등용문 고사는 잉어가 등용의 폭포를 거슬러 뛰어오르면 용이 된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잉어가 밤낮으로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경계, 끊임 없는 정진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는 잉어는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바라보는 전통적인 작품에 가장 많이 등장했다. 늘 깨어있는 눈, 쉬지 않고 유영하는 물고기는 격량을 헤치고 나아가는 깨어 있는 한국인의 모습을 상징한다.

조화

인종, 민족, 사상, 경험이 다른 개인들로 이뤄진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작가는 그 해답으로 조화를 제안한다. 조화란 각자의 개성들을 유지한 채 반목하지 않고 어우러지는 상태를 말한다. 붉고 푸른 물고기는 우리나라 국기의 태극의 음과 양처럼 서로 다른 색이 순환하며 하나를 이루는 형상을 하고 있다.

이 작품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서로 다른 사상과 감정을 지닌 사람들 사이의 조화를 말하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대립되는 것들의 조화, 나아가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의 조화로운 공생을 의미하기도 한다.





유성우

네오피셀 클러스트를 이용한
유성우 연출 장면이다.
먼 우주로의 긴 시간 여행을 하고,
이곳 당현천 품 안으로 돌아온 유성들,
행복한 별들의 추억을 이곳에서
펼쳐 보입니다.



쥐불놀이

이 작품은 이제는 사라진 쥐불놀이를 기억하며 만들어졌다. 쥐불놀이는 정월 대보름쯤에 농사짓는 터의 쥐나 해충들을 없애고 잡초를 태운 재가 거름이 되도록 불을 놓는 연례행사를 놀이로 승화시킨 것이다. 산업화가 되기 전에 정월대보름이 오면 마을의 청년과 아이들은 보름달 아래에서 철사줄을 단 구멍 난 강통에 불을 넣어 뱅글뱅글 돌려 불을 내었다. 아이들은 식구들이 찾아와서 집으로 끌고 가기 전까지 불놀이를 멈추려 하지 않았고, 다 타고 남은 불씨를 일제히 하늘 높이 던져 불뚱이 떨어 지는 광경을 연출하며 마무리 된다.

여기저기 불이 옮겨붙어 불을 끄기 위해 한바탕 푸닥거리를 하는 일도 있었지만 당시 마을마다 불을 돌리는 광경은 불만한 것이었다. 이 작품을 보며 지금은 화재 위험이나 더 좋은 농사기법 덕분에 사라진 쥐불놀이에 선인들의 지혜를 떠올려볼 수 있을 것이다.

푸른 나무

<푸른 나무>는 작가가 2017년 제작한 ‘무우수나무’의 후속작으로 ‘생명의 나무’를 형상화했다. ‘무우수’란 ‘근심 없는 나무’라는 뜻으로 석가모니가 탄생할 때 마야부인이 잡은 나무로 전해진다. 원래 푸른 나무가 만들어지기 전에 <생명나무>라는 제목으로 세계를 의미하는 밀폐형 돔 안에서 자라는 나무를 만들기로 했었다. 생명나무는 산소 생성기에서 맑은 공기가 돔 내부를 채워 달빛산책을 나온 시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함께 어우러져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설치작품이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밀폐된 공간 설치가 불가능해졌고 ‘생명나무’는 ‘푸른 나무’가 되었다. 생명력 넘치는 붉고 화사한 꽃들이 몽글몽글 피어나고, 푸르고 싱그러운 나뭇잎이 풍성하게 자라난 ‘푸른 나무’는 활기찬 도시, 건강한 노원구가 되길 바라는 작가의 마음을 담고 있다.





격랑I, II

살아있는 물을 빛으로 투영하고자 당현천에 흐르는 물이
순간적으로 솟구치는 형상을 포착하여 표현하였다.

전영일 | Jeon Young-ill,
4000x2300x1700mm / 2500x2300x1200mm, 스틸와이어, 한지, 조명, 2020

10.23—11.15





도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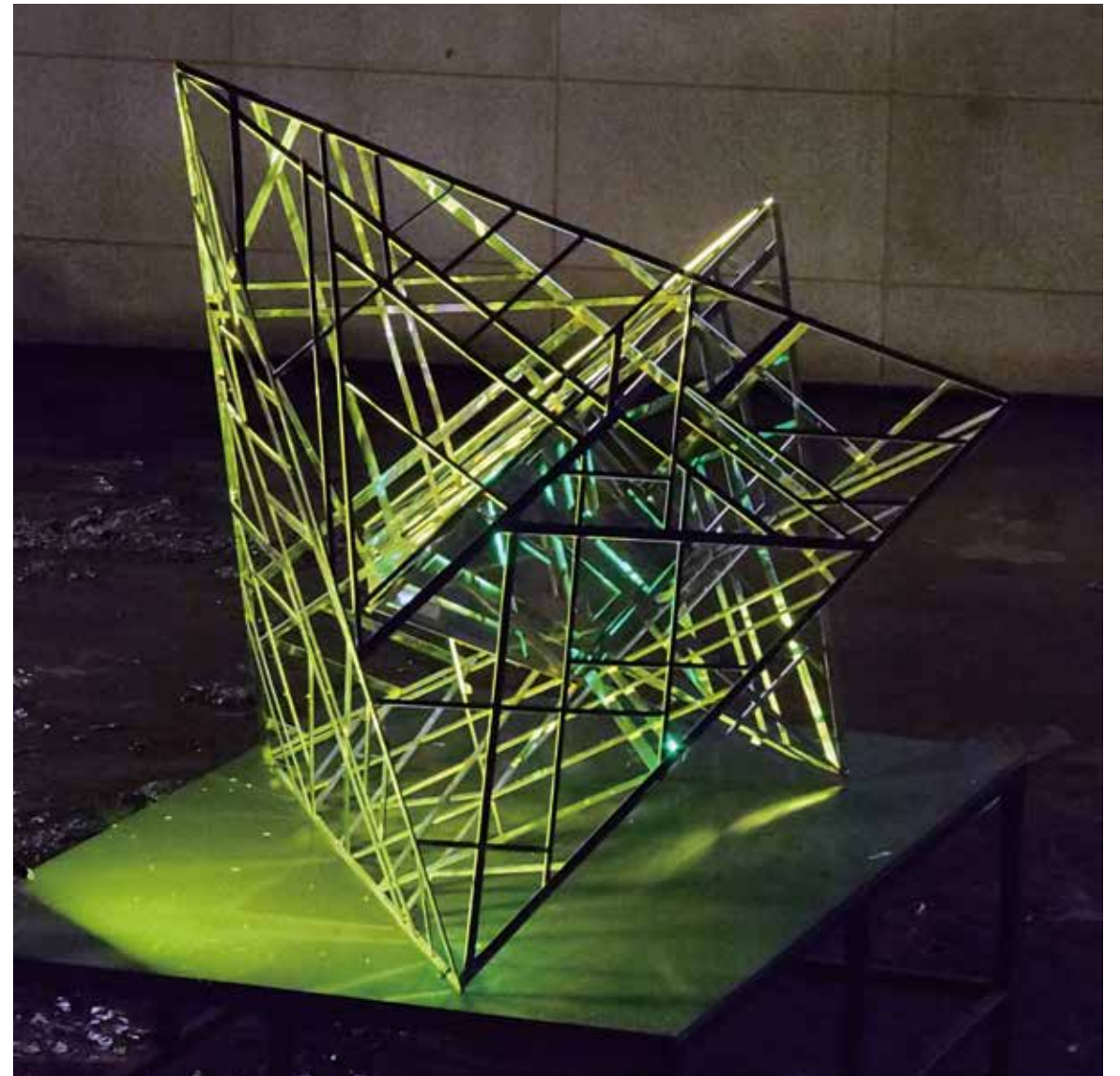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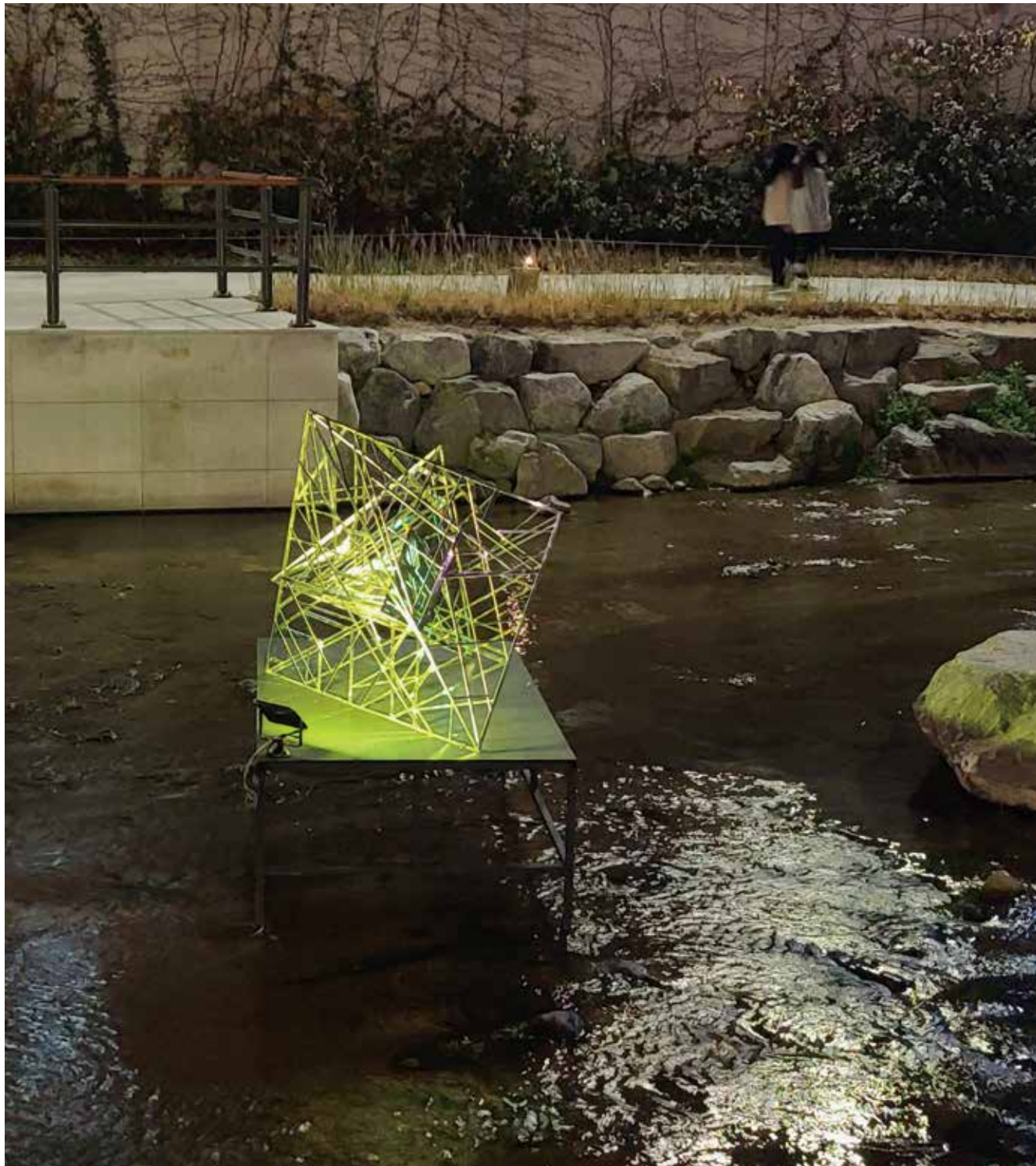
이 작품은 도시를 표현한 작품 시리즈 중 하나로 우뚝 솟은 도시의 빌딩들을 표현하였다. 도시가 살아서 자라나듯 빌딩 숲 사이에서 또 다른 작은 도시가 탄생하여 성장하는 모습이다. 끝없이 커지는 인간의 욕망을 도시의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천지인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유지되는 생동하는 민족 공동의 기운을 세 가지 힘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우리 민족은 천지인 사상으로 세계를 해석했는데 천(天)은 우주를 품는 하늘을 의미하며, 지(地)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그리고 인(人)은 인간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는 비단 하늘, 땅, 인간을 의미할 뿐 아니라 세상 만물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 세 가지 힘이 관계하며 이루어진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천지인 사상이야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다.





내가 아는 너

서로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교집합 속에 상대에 대한 이해와 함께 상대가 알고 있는 나의 존재가 동시에 담겨있다. 이 교집합이 너와 나의 관계를 설정하는 가치의 크기이다. 내가 아는 나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수없이 창조되고 변화한다.

결과적으로 내가 아는 나는 너의 시선에 비친 나일 수도 있고, 너의 기대 속에서 부풀려지거나 축소된 나일 수도 있다. 너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나는 온전히 혼자 존재할 수 없으며 사회를 떠나서는 규정될 수 없다. 작품은 관계 속에서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한다.



도시2

도시 시리즈의 또 다른 작품이다. 확장하는 도시의 모습은 스테인리스스틸로 표현하였고, 확장하는 도시의 중심부에는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아가는 실제 도시의 모습을 한지를 덧대어 은은한 조명이 퍼져나가도록 만들었다.

전영일 | Jeon Young-ill,
1700x1600x1500mm / 1700x1600x1600mm, 스틸와이어, 스테인리스스틸, 한지, 조명, 2020



도시3

전영일 | Jeon Young-ill,
1800x1700x1800mm, 스테인리스스틸, 한지, 조명, 2015



풍류

우리 선조들은 예술을 운치 있는
자연 속에서 즐기는 전통을 이어왔다.
당현천변의 다소곳한 나무그늘 아래,
예술을 즐길 줄 아는 우리 민족의
흥과 멋을 시각적으로 느꼈으면 한다.

이기범 | Lee Gi-bum, 전영일 | Jeon Young-ill,
2900x1600x1600mm, 스틸와이어, 한지, 조명, 2013

10.23—11.15

• 61



초가집

지금은 사라진 초가집이지만 달빛의
기억을 소환하여 다시 불러왔다.
가을이 되면 지붕에는 박이 익어가고
짚으로 불을 지피던 아궁이에서
밥이 익어갈 때쯤이면 모락모락 밥
냄새가 퍼져나간다. 어린 동생은
아궁이에서 불을 꺼내 장난을 치다가
다음날이면 키를 쓰고 소금을 얻으러
다녔을 것이다. 작은 초가집에
옹기종기 모인 가족들은 이 밤에
무슨 이야기로 밤을 보냈을까
상상해본다.

공동작업, 2400x1500x1800mm, 스틸와이어, 한지, 조명, 2007



하얀 소

흰 소는 길들여진 인간의 본성이자
깨달음으로 이끄는 안내자이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깨달음을 얻는 단계를
동자승이 소를 찾아 떠나며 겪는 열 가지
일들을 그린 십우도(十牛圖), 혹은 심우도
(尋牛圖)로 설명한다. 동자승이 우여곡절
끝에 소를 찾아 길들이자 소는 하얗게
변하여 그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한다.
이제 할 일을 마치고 동자승을 떠난
하얀 소가 달빛소굴에서 휴식을 취하며
태고의 빛과 소통하고 있다.

공동작업, 2200x1000x900mm, 스테인리스스틸, 한지, 조명, 2009

빛에 머물다

둥근 달을 바라볼 때 보는 이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달의 의미는 달라진다. 이 작품은 달빛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일렁이는 감정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길을 걷다가 문득 마주친 달은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이의 따뜻한 미소로 보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원하는 것을 달에게 빌어보던 아련한 추억으로 보일 수도 있다.

<빛에 머물다>는 사람마다 다른 마음이 달빛에 닿아 바람 속 안개처럼 일렁이며 영감이 되어 돌아오는 장면을 묘사한다.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보면 매일 달은 우리를 맞이하지만 도시의 삶은 달을 볼 여유마저 앗아 버렸다. 그렇기 때문인지 오랜만에 마주한 달은 고단한 삶을 위로해 주는 신비로운 힘이 있다. 우리가 달을 잊고 살 때도 언제 어디서나 말없이 따라오며 길을 밝혀주는 달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언제나 하늘에서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는 달은 시시각각 변하는 삶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인생의 좌표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게 한다.





두 개의 달

<두 개의 달>은 폐자전거를 재활용한 작품으로 환경을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자전거바퀴를 해체한 후 한지조명으로 만든 바퀴를 재조립하여 밤에 어두운 자전거 길을 밝혀준다. 수많은 시민들이 지구의 환경과 건강을 지키는 운송수단으로 애용하고 있는 자전거를 작품으로 만들어서 자전거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한다. 자전거길을 밝히는 자전거 작품들은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는 따뜻한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다.

공동작업, 1800x700x1100mm, 오브제, 스틸와이어, 한지, 조명, 2020

10.23—11.15





달빛산책

재활용 자재를 사용하여 이번 행사의 대형 알림판(노원달빛산책)을 제작하였다. 도시의 화려한 광고판이 환경적, 시각적 공해가 되어가는 지금, 환경과 자연을 생각하는 작가의 사려 깊은 뜻이 담겨 있다.

보름달

<보름달>은 당현천을 산책하는 시민들이 가까이서 그윽한 빛을 내는 달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우리 민족에게 보름달을 보면 소원, 희망, 기억, 엄마의 모습 등 긍정적인 의미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달은 그런 따사로운 이미지보다는 밤늦게 까지 이어지는 노동과 도시의 어두운 이면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차가운 이미지로 변모되어 갔다.

당현천에 뜬 겹겹이 붙인 한지 속에서 부드럽고 은은한 빛을 뿜으며 오늘날 차갑고 쓸쓸한 달의 이미지를 상쇄시킨다. 작가는 세 개의 달을 당현천 곳곳에 배치하여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온화하고 조용한 달빛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기원

오래전 우리의 어머니들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새벽에 깨끗한 우물물을 길어 받아놓고 달에게 소원을 빌었다. 작품 <기원>은 ‘정화수를 떠놓고 손을 모아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향아리의 뒤집어진 뚜껑에 작품 중 <보름달>의 빛이 반사 되도록 해서 작품 속에 또 다른 작품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기원>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달처럼 향아리 뚜껑 속에 둥근 하늘을 담아 반사되는 그윽한 달빛을 볼 수 있도록 빛의 각도와 작품의 위치를 정교하게 설계했다. 관람자들은 각자의 앞에 놓인 향아리에 비친 달을 통해 소원을 비는 어머니의 시선을 경험하며 어머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달을 바라보는 많은 입장과 감상들은 각각의 이야기를 만들어 냈을 터이고,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수많은 달이 만들어지고 표현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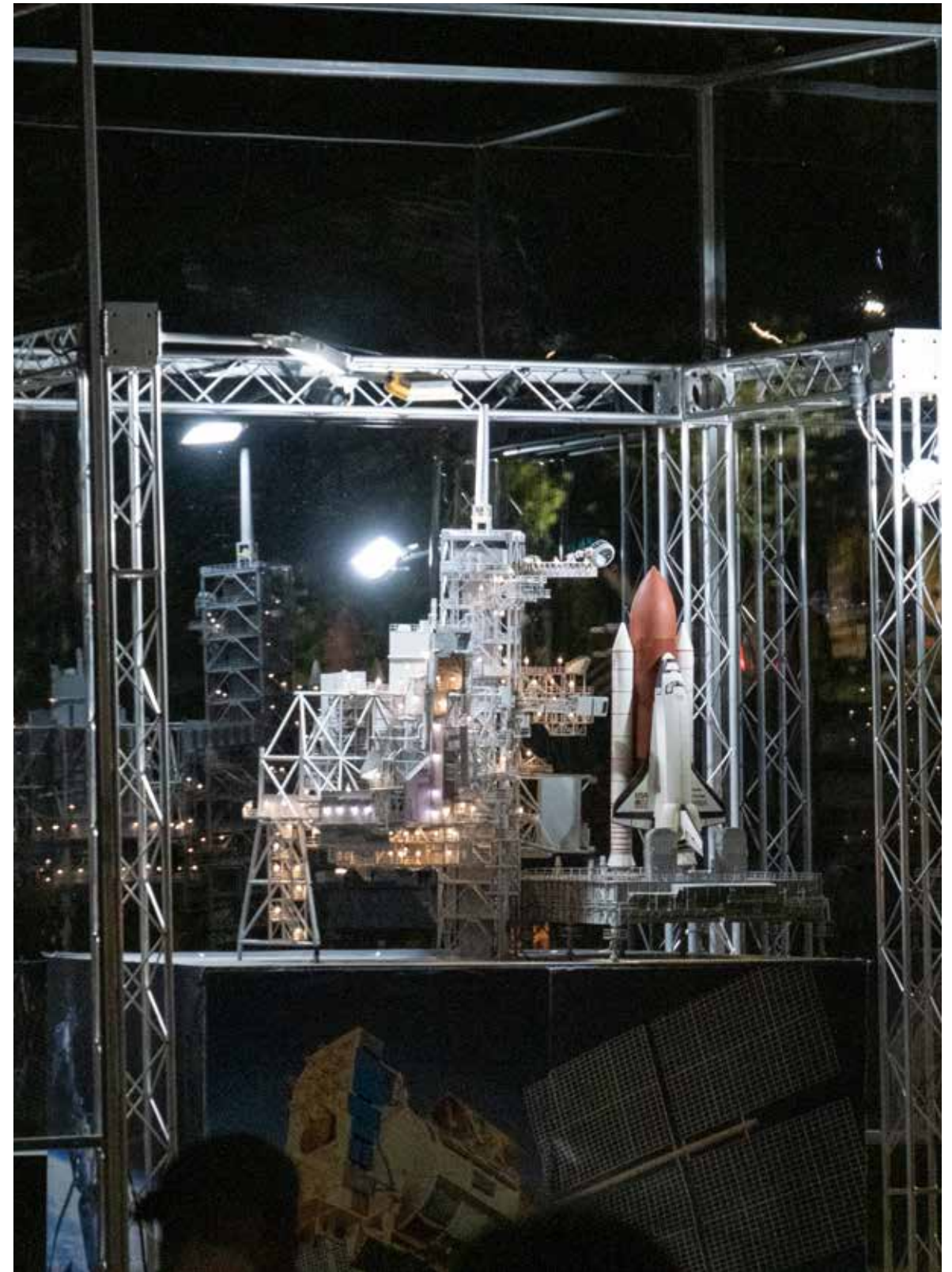


달/달과 대화하는 우주인

이 작품은 <보름달> 작품과 연결되어 하나의 서사 구조를 이루는 작품이다. 달은 지구의 역사와 함께하며 지구의 밤을 비추어 왔다. CCTV처럼 한결같이 지구를 관찰하는 달이 본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 작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달을 방문한 우주인을 소환해 본다. 과연 우주인은 달이 간직한 지구의 기억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



우주왕복선: 미국 항공우주국(NASA) 콜롬비아 우주왕복선
 NASA :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제작 | 이현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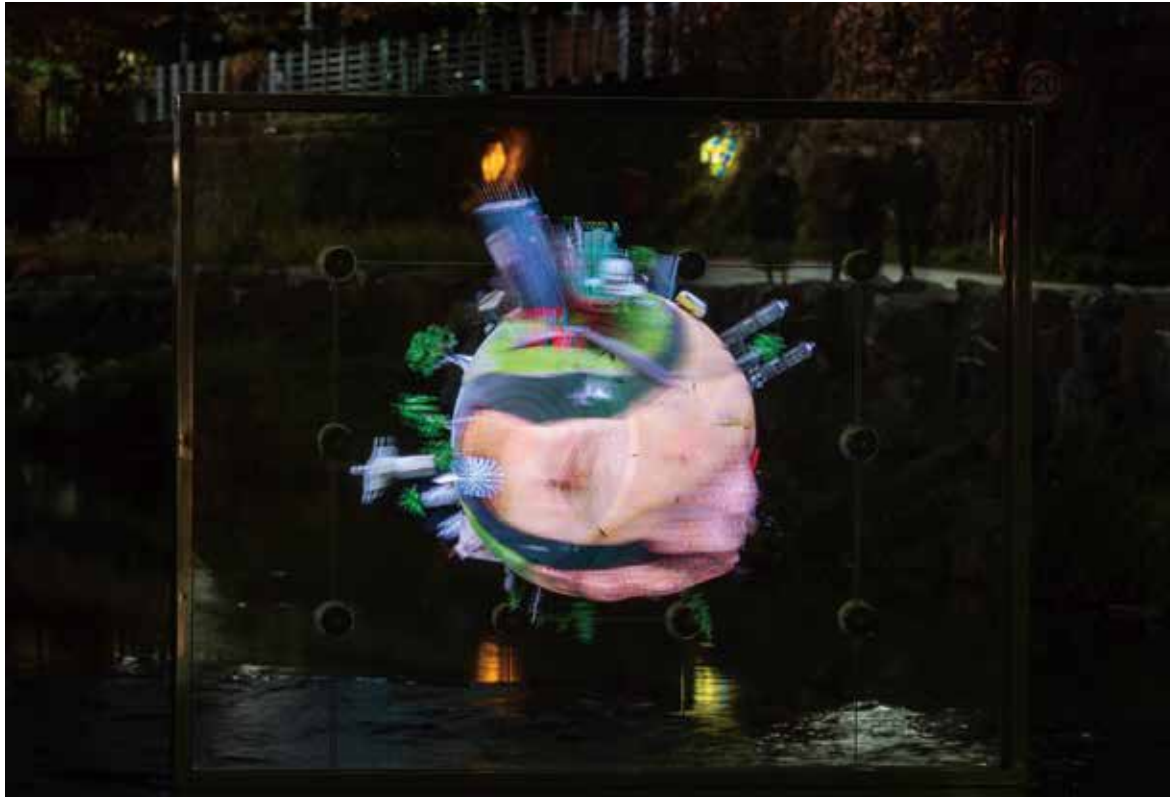
동물친구들: 어린이들을 위한 동물 친구들이 노원구를 찾아왔다!
 캥거루, 토끼, 기린을 비롯해 거북이, 돌고래까지
 육지와 바다를 망라한 마흔아홉 동물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2020 Nowon Moonlight Walk

‘동물친구들’작품은 노원불빛정원과의 협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노원 타임슬립

홀로그램으로 표현된 신비롭고 광활한
우주와 지구의 모습 그리고 밤하늘의 별빛,
그 먼 곳의 이야기. 태초의 생명, 푸른 바다!
그 속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다양한 생명들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홀로그램 영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2020
Nowon
Moonlight
Walk

작품 소개 ② 특별전 — 일곱 개의 달 두 개의 다리



달그림자

보라리 | Bora Lee

<달그림자>는 실을 사용한 뜨개질의 기법으로 만든 부드러운 조각의 형태를 띠고 있다. 당현천의 가벼운 바람과 함께, 자유롭게 움직이는 <달그림자>는 수면 위에 가까이 배치함으로써 수면 위의 안개 같기도, 수면 위의 그림자 같기도 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달 아래 유유히 흘러가는 구름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당현천 위에 낮게 띄워 당현천이 비치는 하늘 위로 달그림자가 흘러가도록 하였다. 물속에 비친 하늘과 그 위에 흘러가는 구름 형상의 작품을 보며 위아래가 역전되어 하늘을 내려다 보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 작품은 구름에 가려졌다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달이 더 반갑게 느껴지듯이 우리의 삶도 힘든 날들이 있기에 그렇지 않은 날들이 더 빛나며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달춤

서성봉 | Seo Sung-bong

흐르는 물속에 잠긴 달빛은 물결과 함께 춤을 추듯 흔들린다. 당현천을 내려다 보는 관람객들을 물속에 뜬 보름달과 하늘을 발견하게 된다.

중국의 시인 이태백은 동정호에 비친 달을 잡으러 물속에 들어갔다가 익사했다고 한다. 시인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달은 우리에게 예술적 영감을 불러 일으키는 대상이자 삶과 죽음을 초월한 영속적인 시간을 떠오르게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물속에서 흔들리는 달빛을 바라보며 하나 둘 움직이는 마음속 깊은 곳의 빛들에게 몸을 맡겨보는 것은 어떨까?





푸른 달의 노래

인송자 | Yin Song-ja

<푸른 달의 노래>는 희로애락의 인생사를 달빛에 빚대어 표현한 작품이다. 검푸른 밤길에서 만나는 초자연적 존재인 달빛에 기대면 소망하고 원망하던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초연해진다.

작가는 현대인의 굴곡진 여정에 길동무가 되어 위안을 주며, 지친 일상의 끝에서 만나게 되는 달빛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작품으로 전달하고 있다.

지름 2000mm(2점), 1800mm(1점), 1500mm(2점), 가변설치, 스테인리스 스틸, 한지, LED, 2020

10.23—11.15

월강(月江) 소나타

박건재 | Park Keon-jea

휘영청 밝은 달빛은 정겨운 연인들에게는 사랑의 빛이며 자녀의 건강과 집안의 안녕을 비는 어머니에게는 위로의 빛이다. 작가는 삶의 빛이 되는 작은 마음을 담은 따뜻한 빛들을 눈물방울의 형상으로 하늘에서 내려 준다, 영롱하며 아름다운 달빛은 때로는 슬픔과 기쁨을 같이 나누는 신비로운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

작품은 12개의 달빛이 눈물 조각으로 내려앉아 사람들에게 행복의 충만함을 느끼게 해준다. 12개의 달의 눈물은 음악 악보의 음표의 상징이며 열두 달을 상징하기도 한다. 달은 너무나 멀리 있어 닿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달의 세계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유토피아이기도 하다. 달은 일 년 열두 달 사람들 속에서 같이 호흡하며 희로애락을 함께 지켜보는 빛이자 마음을 정화시키는 빛이다. 당현천에 내려앉은 열두 개의 달빛은 개개인의 희망과 소원을 상징한다. 작품 월광 소나타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마치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려앉아 잔잔한 감동을 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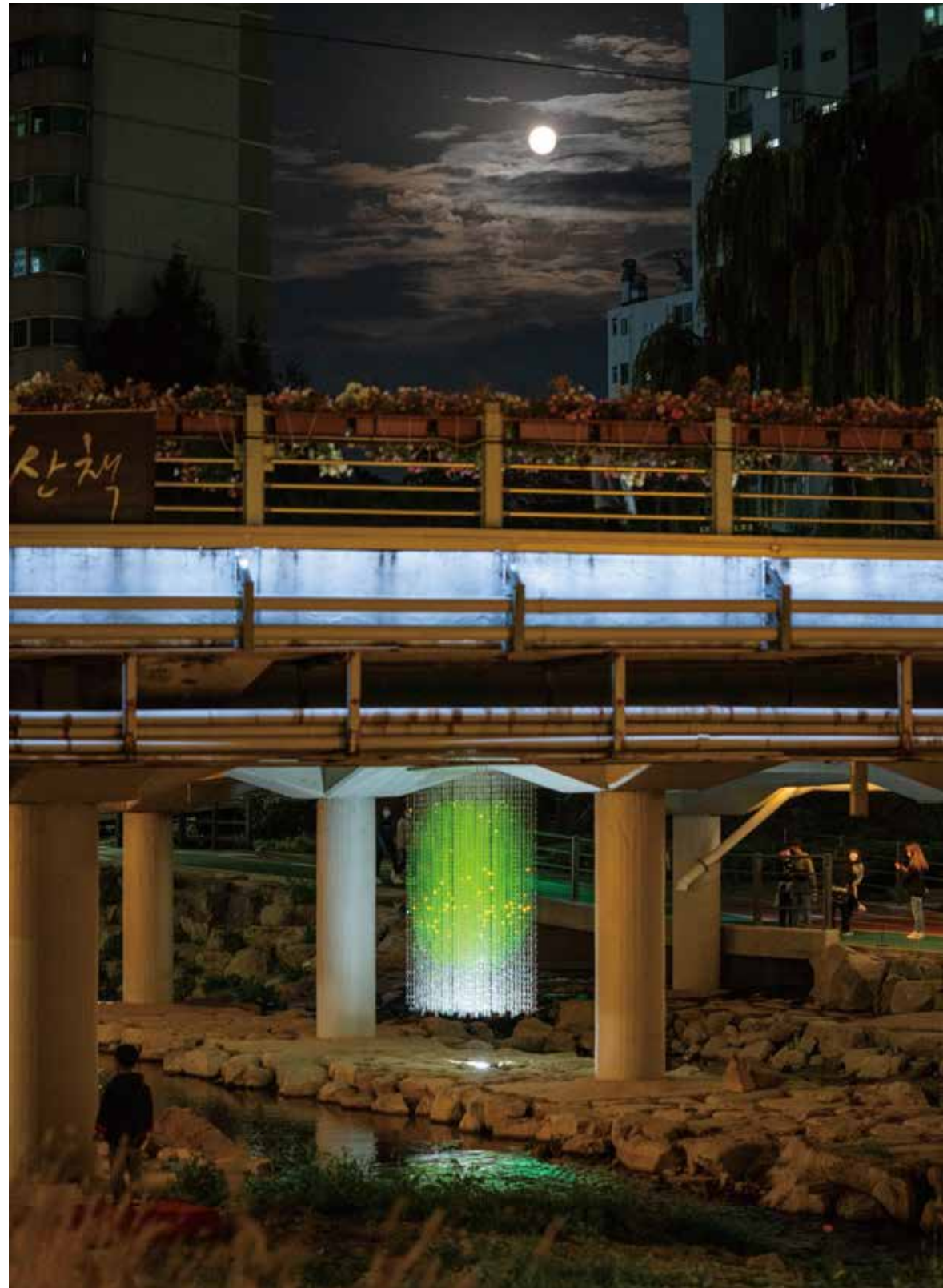


만월(滿月)

박민섭 | Park Min-sub

작가는 고단한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희망을 주기 위해 이 작품을 만들었다.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여 빛을 내듯이 이 작품은 작은 형광 아크릴 조각이 빛을 반사하여 달의 형상을 만들어 낸다.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작은 조각들이 서로 모여 거대한 달을 만들어 내듯이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의미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담겨 있다.

2000x800x3000mm, 아크릴, 코일O링, 2020



10.23—1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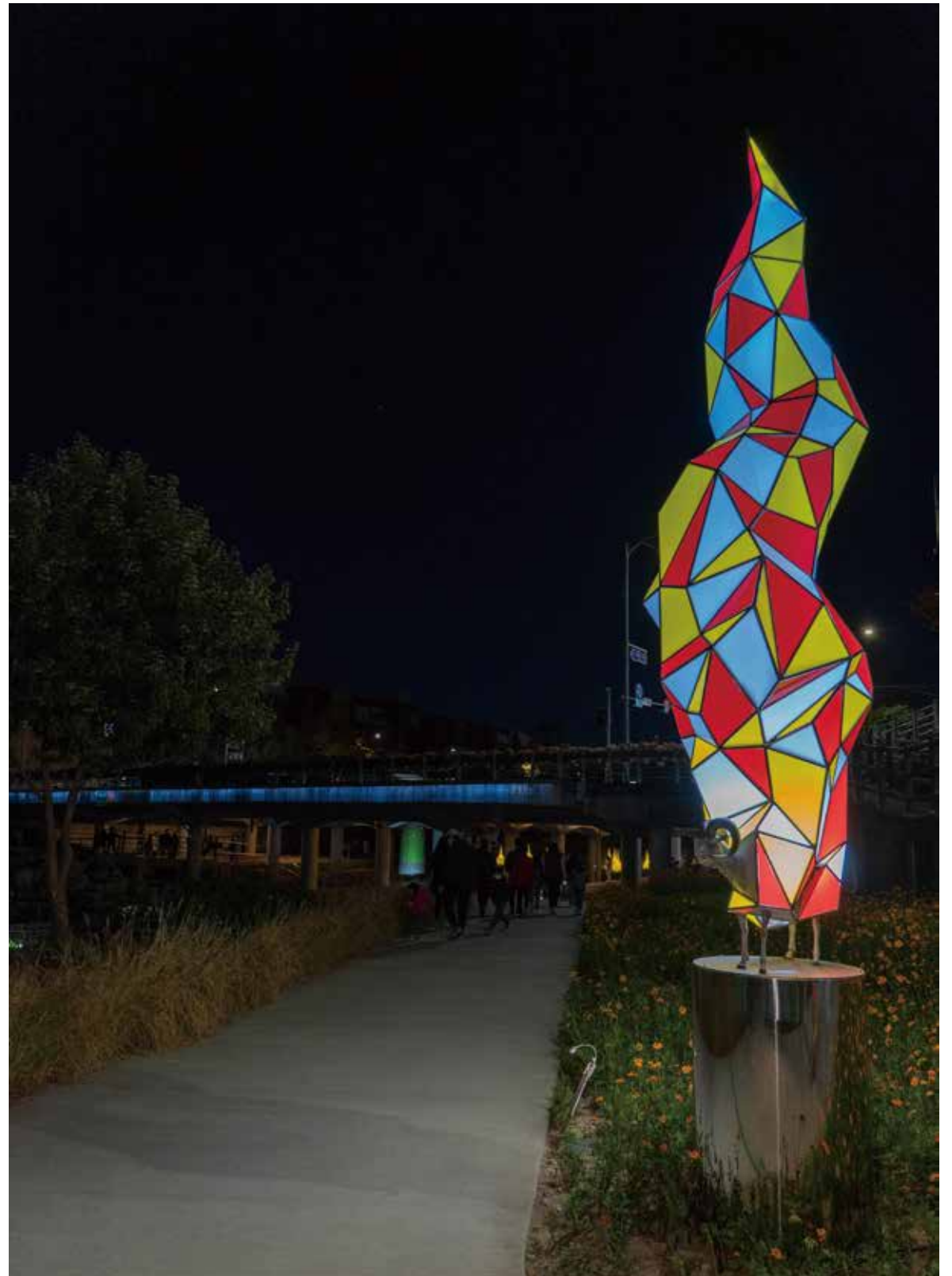
길(Road)

송필 | Song Feel

달의 빛은 어두운 밤, 컴컴한 곳에 빛을 비추어 방향과 견고자 하는 길을 제시해 준다. 이 작품은 달빛에 더해 가는 길을 밝힌다는 의미로 촛불의 빛을 더해 초가 타오르는 듯한 형태로 제작하였다. 타오르는 불꽃의 형상은 낮에는 그 자체의 컬러풀한 색감으로. 해가 지고 난 후에는 밝게 빛나는 빛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길을 생각해 보게 한다.

불꽃의 형상을 받치고 있는 동물의 형상은 인간, 그리고 자연과 같은 생명을 대변하는 것이다. 불꽃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힘겨울 법도 한데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당당히 서 있는 동물의 형상은 인간이 가진 삶의 의지에 대한 경외감을 상징하고 있다.

900x960x3800mm, 폴리 카보네이트, 조명, 브론즈, 스텐레스, 2020



10.23—11.15

결월(缺月)

김권룡 | Jin Quanlong

작품 <결월>은 구름이 걸쳐진 초승달을 물 위에 설치한 스테인리스 재질의 조각 작품이다. 달의 실제 형태는 구체에 가깝지만 빛과 보는 위치, 각도에 따라서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 작품은 달의 여러 가지 형태중 음력의 시작점인 초승달의 모양을 망치로 두드려 반짝이게 한 스테인리스 편철을 엮어서 제작하였으며, 작품 내부에 조명을 설치하여 편철 사이로 빛이 새어 나오도록 했다.

초승달 형태로 열기설기 엮인 편철들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간관계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작가는 구름이 부드럽게 초승달을 감싸고 있듯이, 우리가 시기, 질투, 아집을 버리고 믿음과 배려로 서로를 감싸 안을 때 이 세상은 달빛처럼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작품을 통해 형상화 하였다.



일곱 개의 달, 두 개의 다리

이수

|
노원달빛축제
특별전 큐레이터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달이 함께 해왔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달이 차고 기우는 주기에 따라 일, 보름, 달, 년의 주기를 세었고, 보름달이 뜨는 날에 맞춰 명절을 쇠었다. 우리는 밤하늘의 은은한 달빛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가슴속 깊이 숨겨둔 소원을 이뤄주는 영험한 능력으로, 때로는 어두운 삶을 밝게 비춰주는 길잡이로 생각해 왔다. 역사적으로 달은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희망의 상징이자 힘겨운 삶을 위로하는 동반자였다. 일제 강점기에는 셋별을 등대 삼아 길을 찾아가는 우리 민족을 상징했으며, 굴곡진 현대사에서 서민들의 비탈진 보금자리를 지키는 등불이기도 했다. 오늘날 삶의 방식들은 이런 달의 의미를 점차 퇴색시켜갔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달을 향한 애뜻함이 남아 있다. 이제 일곱 명의 작가가 달에 대한 기억을 한자리에 모아 달이 비쳐준 삶에 대해 되돌아보기 위해 당현천에 모였다.

본 전시는 ‘2020노원달빛산책’에 마련된 특별전으로, 축제에 야외 전시 형식을 결합하여 예술성을 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우리 삶에 조용히 함께 해왔던 달빛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공공미술, 빛, 조각의 형식이 결합된 일곱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오늘날 화려한 도시의 불빛은 밤에도 낮과 같은 에너지와 활력을 제공하며 밤이 주는 위안과 사색의 시간을 앗아 왔다. 밤이 밝아지자 노동시간은 길어지고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을 위한 여가문화와 유흥문화도 번성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쓸자 우리의 활동 에너지는 갈 곳을 잃고 치유의 시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경제활동뿐 아니라 야간 활동이 제한된 시점에 우리에게 단순한 눈요깃거리보다는 감성적 소통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2020노원달빛산책’의 특별전은 달을 매개로 소통의 염원을 담은 차분하고 무게감 있는 전시로 기획되었다. ‘2020노원달빛산책’은 축제의 예술적 위상을 높이고 공공미술로서의 빛 조각(Light Sculpture)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시작되었으며, 순수예술과의 접점을 찾기 위해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한국의 동시대 미술작가 7명으로 구성된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특별전에는 김권룡, 박건재, 박민섭, 보라리, 서성봉, 송필, 인송자 등 7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당현2교 주변구간을 예술적 전시공간으로 변화시킨다. 노원의 당현천을 가로지르는 당현1교에서 2교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가장 먼저 보라리 작가의 <달그림자>와 마주친다. 보라리 작가는 구름처럼 낮게 드리울 수 있는 뜨개실과 LED조명을 엮은 부드러운 재질의 조각 작품을 당현천에 선보인다. 달 아래 유유히 흘러가는 구름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당현천 위에 띄워 수면에 비치는 하늘 위로 빛나는 흘러가도록 하였다. 작품 너머로 보이는 달 조각과 달빛의 흔적이 시각적으로 연결되며 하늘이 당현천에 내려온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보라리 작가의 작품을 지나 다리 위에 올라가서 흐르는 물속을 바라보면 수면에 비친 하늘 속에 은은하게 잠긴 달빛을 발견하게 된다. 물속에 조각 작품을 설치하는 과감한 시도를 선보인 서성봉 작가의 <달춤>은

물속의 달이 물과 함께 춤추듯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시인 이태백이 따라갔다는 물속의 달처럼 작품은 우리에게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삶과 죽음을 초월한 긴 시간을 떠올리게 한다.

인송자 작가의 <푸른 달의 노래>는 은은한 푸른빛의 빛 조각 작품을 강 위에 띄운다. 인송자 작가의 작품은 인생의 길목에서 만나는 희로애락의 감정을 담은 달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인송자 작가는 “현대인의 굴곡진 여정에 길동무가 되어 위안을 주며, 지친 일상의 끝에서 만나게 되는 달빛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라고 말하며 고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며 만나게 되는 달에 대한 고마움을 전달한다.

박민섭 작가의 <만월(滿月)>은 당현2교 아래 휴식공간에 설치된 작품으로, 작가는 “고단한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이 작업을 했다”라고 한다. 태양빛을 반사하여 달의 형상을 드러나듯, <만월>은 작은 형광 아크릴 조각이 빛을 반사하여 달의 형상을 만들어낸다. 작은 아크릴 조각들은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강에 빛을 반사되기도 하면서 작은 존재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온전한 의미의 힘을 느끼게 한다.

박건재 작가의 신작 <월강(月江) 소나타>는 개개인의 소망이 모인 빛들을 12개의 빛나는 눈물방울로 형상화했다. 12개의 빛 조각은 12음계, 십이지신, 열두 달과 같이 개별적인 상징들이 모여서 이루는 완전한 세계를 상징한다. 작품은 먼 곳에서 빛나는 유토피아와 같은 달에서 떨어진 눈물처럼 빛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작가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Moonlight Sonata)처럼 사람들 마음속에 내려앉아 잔잔한 감동을 주길 바란다”고 말한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김권룡 작가의 <결월(缺月)>은 음력의 시작을 알리는 초승달의 모양으로 스테인리스 스틸을 연마하여 외부 환경을 반사하도록 만든 작품이다. 원형에 가까운 형상 내부에 조명을 설치하여 각도에 따라 보름달에서 상현달까지의 스펙트럼을 볼 수 있게 하였다. 단단한 금속 조각의 외피가 반사하는 빛과 비물질적인 전기가 뿜어내는 빛을 하나의 작품으로 연결한다. 초승달 형태의 금속조각의 중심에서 나오는 둥근 빛의 띠는 어디서 보는가에 따라 다른 형상이 보이도록 설계하여 관람자의 움직임에 따라 새로운 형상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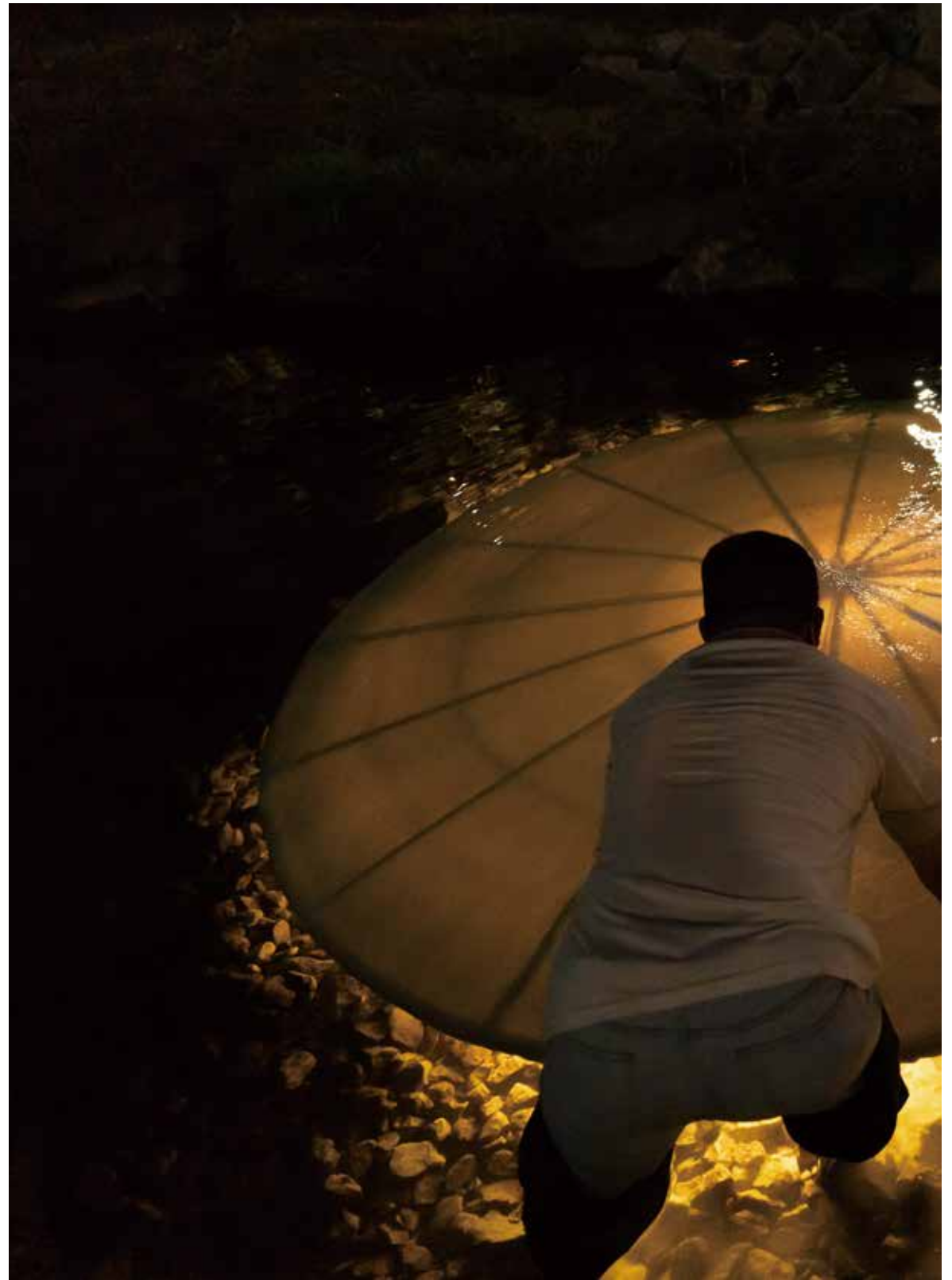
송필 작가의 <길(Road)>은 타오르는 거대한 햇불을 지탱하는 산양의 형상으로, 어두운 밤에 길을 밝혀주는 달의 속성을 표현했다. 햇불의 형상은 인류의 길을 밝히는 희망을, 무거운 햇불을 묵묵히 지탱하고 있는 동물의 형상은 자연을 상징한다. 작가는 인간이 지닌 신념과 의지에 대한 경외감을 무거운 희망의

햇불을 지탱하는 동물의 형상으로 표현하였다. 이 작품은 자신을 태우는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자연의 섭리로 규정된 것에 굴하지 않고 이 세상의 길을 밝히는지를 알려준다.

특별전의 작품들은 달에 대한 다양한 시각적 상상력의 실험 무대가 되도록 배치하였다. 전영일 예술감독의 <보름달>에 뒤따라 보라리 작가의 <달그림자>가 설치되어 달과 구름이 만드는 그림자의 관계 속에서 당현천에 비치는 하늘을 만들었다. 보라리 작가의 작품이 지시하는 물에 비친 하늘을 볼 수 있게 되면, 이후 만나게 되는 낮은 다리 위에서 물 안에 잠겨있는 서성봉 작가의 <달춤>을 발견하게 된다. <달춤>을 뒤로 한 풍경 속에는 인송자 작가의 <푸른 달의 노래>가 보인다. 인송자 작가로 인해 다시 물 위로 떠오른 푸른 달은 추억과 낭만을 시간을 제공한다. 시선이 조금 더 멀리 이르는 곳에는 금빛의 눈물들로 형상화된 박건재 작가의 <월강 소나타>가 있고, <월강 소나타>를 지나 당현2교 안에는 박민섭 작가의 <만월>이 바람에 작은 파장을 일으키며 반짝인다. 조금 더 지난 당현천의 중앙에는 김권룡 작가의 <결월>이 주변의 풍경을 비추며 다양한 달의 모습을 만들어 낸다. 마지막으로 불꽃 형상을 한 송필 작가의 <갈>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빛을 비춰주며 특별전 구간을 마무리하고 있다.

‘2020노원달빛산책’의 특별전은 축제와 공공미술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높아진 시민들의 예술적 취향에 부응하고 공공공간을 예술적 공간으로 변화시켜 특정한 조건에 갇혀있던 예술이 대중의 시공간 속에서 자유롭게 유희하며 호흡할 수 있게 하였다. 미술은 일반적으로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쉬운 주제, 익숙한 형상을 선택하지만 작품을 드러나게 하는 조명과 조건이 구비된 환경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다. 이번 전시는 작품 설치에 취약한 조건들을 장악하고 넘어서서 어떤 시간과 공간에도 제약받지 않고 작품이 드러날 수 있게 했다.

작가들은 외부 조명을 사용하여 작품을 비추기보다 작품 자체가 빛을 내며 어둠을 밝히게 해야 했고, 물가에 설치하는 것을 넘어서 개천을 가로지르고 물속까지 장악하여 작품을 설치해야 했다. 장소 특정성을 넘어서 장소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전개하기 위해 작가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원래 사용하던 재료들을 버리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기에 많은 고민이 뒤따랐다. 작가들의 협업과 설치장소에 대한 협의도 이번 전시의 큰 수확 중 하나이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과 빛이라는 새로운 도전 속에서 작가들 간의 이해와 협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재료, 낯선 작품 제작 방식, 전기와 조명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고 함께 땀 흘리며 특별전이라는 거대한 작품을 완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작품들이 참여 작가들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커다란 달이 되듯이 이번 특별전이 관객들과 호흡하며 살아 숨 쉬는 기억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작품설치





작품설치



2020
Nowon
Moonlight
Walk

달
빛
산
책





이태호

|
작가·미술비평
(전)경희대 교수

코로나19 어둠을 뚫고 나온 빛의 축제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도전

서울 노원구 당현천 일대에 펼쳐진 <2020 노원 달빛 산책>전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의 관심을 끈다. 첫째는 그것이 ‘코로나 팬데믹’의 한가운데에서 열린 미술전이기 때문이다. 이 전시는 비접합, 비대면, 비접촉이 강요되는 전시점에서 시민들에게 거의 자유로운(최소한의 제약은 있었지만) 체험과 참여를 허용했다. 사실 이러한 전시를 어느 미술관이나 지자체에서 선불리 시도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도전이었다.

실제로 오늘의 미술계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맞아 작품 제작에서부터 전시와 관람, 그리고 유통에 이르기까지 ‘일단 정지’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른 봄부터 미술관과 화랑은 대부분 문을 닫았다. 작품을 보여줄 수도, 볼 수도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과연 미술은 앞으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미술계는 거의 공황상태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시기에 도심 속 한 천변에서 열린 조각작품 전시(Open Air Sculpture Exhibition)는 하나의 돌파구를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평소 시민들이 즐기던 당현천에 그동안 흔히 볼 수 없던 형태와 형식의 조각품들을 전시함으로써 그곳을 색다르게 혹은 ‘낯설게’ 하고, 그리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 모을 수 있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익숙한 것의 ‘낯설게 하기’는 미술작품이 구사하는 중요한 전략 중 하나다. <노원 달빛 산책>전은 10월23일부터 11월15일까지, 24일 동안 당현천 약 2km를 완전히 새롭고 낯선 곳으로 만들어 시민들을 초대함으로써 색다른 예술 체험의 장을 마련했다.

그런데 그 도전은 상당히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즐기는 시민들의 표정과 몸짓에서도 그렇고, 온/오프 라인의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그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물론 노원구와 구민의 수준 높은 협조 때문이기도 하고, 전시감독을 비롯한 작가들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착실히 준비하고 진행한 결과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전시가 환영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시민들에게 그동안 느끼고 있던 압박감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기회, 즉 어떤 통감각적 해방감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노원달빛 산책>은 실내에 갇혀 수동적으로 TV나 시청하며 지리한 일상을 되풀이하던 시민들에게, 감염의 위험 없이, 야외에서 생동감을 느끼며 감각적·정서적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저녁이 있는 삶’과 함께 하는 미학

두 번째로 <2020 노원 달빛 산책>전의 특징은 시민들의 “저녁이 있는 삶”에 스며들었다는 점이다. 이 전

시는 특히 해질녘부터 밤 10시까지, 즉 하루 일을 마치고 휴식의 시간에 그 빛을 발했다. 그 이유는 전시 감독의 기획의도가 “달빛 산책”이어서 모두가 그 시간의 어둠을 상징하고 제작한 등(燈)과 전기불빛을 사용한 작품들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야외조각 전시는 낮 시간은 낮 시간대로, 밤 시간은 밤 시간대로 각각 관람객의 시선과 흥미를 끌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심이나 조각공원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조각작품은 낮 시간에 그 형태를 드러내며, 그 시각적 기능이 낮에 한정되도록 설치되어 있다. 밤이 되면 아예 안보이거나, 아니면 작품 주위에 최소한의 불을 밝혀 그 존재를 알리는 정도가 보통이다.

하지만 <노원달빛 산책>의 작품들은 다르다. 《푸른 달빛》이나 《촛불》처럼 낮에도 충분히 매력을 발산하는 작품도 많으나, 그 작품들도 낮 보다는 오히려 밤 시간에 생기를 더하며 살아난다. 작품들이 그 자체의 발광으로 인하여 밝아지고 그것은 당현천 주변의 자연과 더불어 낮과는 확연히 다른 시각적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해 저물녘 이후의 시간이야말로 <달빛 산책>전이 또다른 매력으로 살아나는 시간이다. 그래서 당현천을 자주 찾는 노원구 주민의 경우, 낮의 전시와 밤의 전시 광경을 모두 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필자의 경우도 1차로 밤의 전시를 보았고, 다음날 다시 가서 낮의 전시에 이어 밤까지 거닐며 관람했다.

나는 해질 무렵 어두워지는 사위에서 작품들이 자체 발광을 하면서 낮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을 보았다. 어떤 작품은 사람들의 환호를 부르며 물려와 사진을 찍게 했고, 또 어떤 것은 어둠속에서 작품의 형상이 흐르는 물 위에 거울처럼 반영되면서 조용히 명상적 분위기를 연출했다. 나는 그곳을 거닐면서 새삼스레 ‘미술이란 무엇인가?’라고 자신에게 물었고, 스스로 답했다. ‘미술이란 시각을 통해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슬픔 등 감정을, 그리고 깨달음과 이해 등 각성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로 제작된 사물’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것의 목적은 결국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원 달빛 산책>전은 시민들로부터 풍부한 공감을 얻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내가 그곳을 거닐던 날이 마침 주말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10시까지 관객들이 줄을 잇고 있었다. 마침내 10시에 소등한다는 것을 알리자 관객들은 “안돼요~”라고 소리쳤다. 나는 들었다. 그것은 즐거움과 아쉬움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전통적, 민족적 정취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각 작품들의 성격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것들을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

다. 그저 전체적 특징을 언급하면서 이 글을 마칠까 한다.

모든 작품들이 그 방향을 전시제목이자 기획의도인 <달빛 산책>에 맞추고 있다. ‘달빛’도 그러하지만 ‘산책’도 현대성이랄 수 있는 ‘문명과 속도’에서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다. 그것은 ‘인공’이 아니라 자연을, ‘빠름’이 아니라 느림을 지향한다. 그래서 전시 자체가 한낮의 문명과 속도를 벗어나, 저녁 이후의 자연과 느림을 즐기라고 권유하고 있다. 전시된 작품 전체의 기운은 미래지향적이라기보다는 과거회귀적이고, 외향적이라기보다는 내성적이고 자기성찰적이다. 오늘날의 기술문명이 지구 환경의 파괴에 이르고 마침내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하는 상태에까지 와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예술이 문명의 지나친 속도를 경고하고, 평화와 공존을 위한 ‘느림’을 권유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 일이다.

문명은 대개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최대한 높이 기립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달빛 산책>의 작품들은 당현천을 따라 지평으로 깔린다. 그래서 그 작품들은 14m 높이로 광화문에 서있는 이순신장군 동상처럼 권위적이지 않다. 그것들은 물 위에 있거나, 천변 풀숲에 펼쳐져 있고, 시민들은 천변 양쪽에 있는 산책길을 걸으며 눈높이 아래로 편하게 작품들을 바라볼 수 있다. 그 작품들이 우리들 일상의 긴장을 완화하고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면 바로 그 비권위적이며 자연친화적인 작품의 형상과 설치방식이 일정 정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달빛 산책>전에는 50여점의 다양한 작품이 설치됐지만, 나는 그 작품들에 민족과 전통에 뿌리내린 미학이 관통하고 있다고 느낀다. 단지 《보름달》 등 많은 작품들의 외피가 한지라는 물질 때문이 아니다. 《풍류》《소원》 등 여러 작품에 담긴 서사가 전통문화와 긴밀한 관계라는 점, 그리고 《천지인》《조화-유영》 등에서 태극사상과 같은 동양정신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여러 번 축소되거나 변형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때문에 나는 전영 일작가(감독)가 이번 전시에서 자신의 미학을 충분히 펼쳐 보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그 때문에 한국미술에서 ‘등(燈) 예술’의 정점으로 언제나 진전된 경지를 보여주던 전영일작가를 기억하고 있는 나로서는 이번 <달빛 산책>전의 성취와 별도로 작가의 다음 전시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다음 전시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 열리기를 희망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거리두기 방역 퍼포먼스











2020
Nowon
Moonlight
Walk

세
미
나



등(燈)을 모티브로 한 축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통일신라 시대 경문왕(景文王) 6년(866) 정월 보름에 왕이 황룡사(皇龍寺)로 행차하여 등불들을 구경하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연등(燃燈) 행사의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등축제의 최초의 문헌 기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연등 행사는 고려 시대로 가서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연등회(燃燈會)로 발전되었고, 조선조(朝鮮朝)로 면면히 이어져 오늘날까지 연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중국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수도 하얼빈에서는 ‘하얼빈 빙등제(哈爾濱 氷燈祭)’가 성황리에 열립니다. 삼십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하얼빈 빙등제’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입장객에, 입장료 수입만 한 해 5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지역 최대 행사로 유명합니다. ‘하얼빈 빙등제’는 얼음 조각 안의 오색등을 밝혀 신비하고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해, 건축·조각·회화·춤·음악 등이 고루 어우러진 예술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얼음에 불 밝히는 빙등제(氷燈祭)는 중국 하얼빈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평안도, 함경도의 풍속 중 하나였습니다. 조선조 문신(文臣) 홍석모(洪錫謨)의 저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1849)에 따르면 설달그믐날이면 함경도에서는 빙등(氷燈)을 설치하는데 그 모양은 마치 둥그런 기둥 안에 기름 심지를 박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악귀를 쫓고 마을의 안녕과 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하는 뜻에서 빙등의 심지에 불을 켜놓고 밤을 새워가며 북을 치고 징을 울리며 나팔을 불고, 가면을 만들어 쓰고 춤을 추며 고을 관아와 고을을 두루 돌며 노는 나희(儺戲)를 행했다고 합니다. 이 놀이를 청단(靑壇)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평안도 풍속에서도 빙등을 설치하며 그밖에 도(道)와 주읍(州邑)에서도 각기 그 고을 풍속대로 연말의 놀이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밖에 설달그믐날이 되면 초저녁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거리에 등불을 줄지어 켜놓고 길내에서는 제야에 역질(疫疾) 귀신(鬼神)을 쫓는 행사로 징과 북을 울리며 대포를 쏘아대는데 이것을 ‘연종포(年終砲)’라 하였는데 이러한 것들 역시 우리 조상님들의 등축제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도 매년 등(燈)을 모티브로 한 노원등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진주남강유등축제, 서울빛초롱축제 등 다른 지역의 대형 등축제를 모방한 단순한 볼거리 중심의 축제였지, 노원만의 정서와 정체성을 담지 못한 축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독특한 작품세계를 펼쳐온 전영일 예술감독을 영입하여 다른 지역 등축제와는 확연히 차별성과 독창성을 갖춘은 물론 예술성 높은 등축제로의 변화를 모색하려고 합니다.

또한, 도시의 야간 예술축제로서 수월성을 갖추기 위해 ‘모성’, ‘여성’, ‘따뜻함’, ‘포용’, ‘긍정’, ‘밝음’ 등 복합적 의미를 갖는 ‘달빛’을 주제로 한 전통과 현대가 어울린 등축제를 펼치려 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라는 전대미문의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관람형 빛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하기에 앞서 축제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도시 야간 예술축제로서 새롭게 태어나려는 노원의 등축제의 새로운 가능성과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에서 발전적인 의견이 모아져, ‘2020 노원달빛산책’ 노원등축제에 반영되어 성공적인 축제가 개최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노원달빛산책’이 다른 지역 등 축제의 전형(典型)이자 본보기가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시관을 뛰쳐나와 무한 확장된 예술 공간, 낮보다 중요해진 밤의 영역, 그리고 공공미술로서의 빛조각의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2020 노원달빛산책의 계기가 되었다. 미술관이나 기타의 전시공간은 낮을 밤처럼 꾸미고 작품으로 향하는 집중력을 요구한다. 국제적인 산업분업화, 급격한 의식변화, 문화예술의 창조적 분화, 더욱 빨라진 국제적 정보유통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예술가 지망생들이 넘쳐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붓으로 그리고 흙으로 빛는 미술활동이 고전적으로 치부될 정도로 다양한 예술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일을 하기 위해 에너지를 비축하는 밤의 역할은 점점 축소되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오히려 밤에 맞는 새로운 활동을 개발하고 소비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빛조각(전통적의미의 등불)은 과거의 전통적 의식과 사상을 반영하는 사회적 양식에서 벗어나 조형물을 만들어 의미를 부여하고 대중들과 수시로 호흡하는 현대미술의 방식을 취한다. 빛이라는 물질의 특성상 밤에 부여받는 조명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그러한 측면은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영역의 일부분일 뿐이다. 이미 모든 밤의 문화예술은 조명을 필수적인 장치로 응용하거나 이미지를 창조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명기술의 발달로 인해 점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야간의 문화예술형태가 휘황찬란한 공간에서 특수한 계층들이 향유되는 소수중심에서 광장으로, 그리고 도시 구석구석에 까지, 나아가 광활한 대지로 확장되어가는 중이다. 밤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늘어갈 것이며 온전히 공공의 영역을 담당하는 그 대명사를 유지하겠으나 그 비중이 줄어들은 어쩔수 없을 듯 하다. 밤의 주인공은 사람이며 그것을 더욱 가치있게 만드는 문화예술은 빛을 잘 다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따를 때 공공의 밤은 더욱 의미있는 시간으로 주어질 것이다. 노원달빛산책은 그러한 시도에 불을 밝히고 싶음이다.

노원달빛산책은 야간 도시문화속에서 공공예술의 새로운 시도로 ‘빛축제’를 고민하며, 공공성, 대중성, 예술성이라는 세 가지 관점을 가진다. 또한 준비과정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방역의 관점이 추가되었다. 첫 번째,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 즐기는 공공예술축제를 만들고자 하였다. 작가와 시민들이 작품을 두고 대화를 하는 방식을 ‘인터랙티브’영역이라고 지칭하는데, 인터랙티브 아트는 참여자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감각적 호기심을 자극하므로 새로운 감성과 체험을 전달한다. 예술이 시민들의 세계와 매우 동떨어진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느낄 때 예술과 대중들의 거리감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문화예술교육을 활용하여 그 성과물로 작가와 대중이 함께 작업을 완성해가는 모습도 중요하다. 비록 단순한 작업이 주류를 이루지만 서로를 이해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을 쌓게 한다. 노원문화예술재단은 많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양적, 질적으로 뛰어난 시민들의 자발적 네트워크와 일상적인 협조가 가능하다. 따라서 예술가들과의 협업이 용이하다. 예술가들은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 즐길 수 있는 작업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현실화 시키고 작품을 전시할 시에는 시민들이 작품에

참여했음을 표시한다. -노원달빛축제 글자를 병뚜껑이라는 재활용소재로 시민들과 만들었다- 주체자로서의 시민 참여도 시도하였다. 구민해설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행사를 완성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주민 스스로가 행사의 주체가 되어 지역의 친밀도 있는 휴먼웨어 콘텐츠가 생산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방식들은 추후 지속가능한 모델로서 고민이 필요하며,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한 콘텐츠들의 생산과 운영방식들이 보다 견고한 민관협력체계를 형성하여, 나아가 관의 무게를 줄여가며 점차 주체적인 공공의 권역으로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방역퍼포먼스 팀의 활동은 그 정점이 될 것이다. 코로나시대의 전시공간에서 발생하게 될 우려를 예술적 활동에 의하여 불식시키고 예방하려는 시도를 준비하였다. 노원구의 연극배우들과 협업하여 전시공간에서 펼쳐지는 일상적인 퍼포먼스는 주민들의 자발적 의지가 외화된 예술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두 번째, 기존의 등축제가 가진 상투성, 단순성을 극복하여 질 높은 대중예술축제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전통과 비교적 쉽게 결부될 수 있는 주제적인 측면에서 나아가 도시문화로의 확장을 꾀했으며, 다양한 작가들과의 소통을 시도하는 특별전 부분을 추가하였다. 행사의 대상지인 도심 속의 당현천은 찾아가는 목적형의 공간이 아닌, 거주민들의 일상 공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계기성 사업은 주민들의 일상에 밀접하게 접근해야 한다. 노원달빛산책은 친근한 일상의 공간에서의 발견되는 새로운 예술적 경험이 주민들에게 다양한 예술적 실험과 실천의 계기로서 작동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기획되었으며, 앞으로의 노원달빛산책에서 이러한 주민들의 예술실천 동기에 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상속에서의 예술적 경험과 실천이 노원달빛산책이 대중성의 측면에서 추구하는 바이기도 한다.

세 번째, ‘달빛’이라는 한국적인 빛깔을 제시하고 정체성이 분명한 고유의 예술축제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전형적이고 구체적인 이미지의 달의 모양새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확장해 재해석하려는 노력을 했다. 보름달은 전통적으로 공동체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 소원을 비는 대상으로 존재해왔으며, 달빛은 이러한 소원을 살피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민족적인 개념으로의 달은 우리네 정서를 포함하며 미래로의 지향의 의미를 담고 있다. 노원달빛산책은 이러한 고유한 정서를 예술성으로 구현하려고 시도했으며, 작품 <빛에 머물다>, <기원>, <두개의 달>, <달빛소굴>, <도시>등의 작품을 통하여, 달을 바라하는 다양한 관점과 태도를 보여준다. 여러 해석들은 다양한 예술적 체험을 유도하고 있으며, 대상지 공간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특별전 작품 <월광소나타>, <푸른달의 노래>, <만월>, <달춤>들은 ‘달’로 한정되는 소재적 관점을 넘어서 새로운 시도를 보여준다. 달빛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공공예술의 관점으로 관람객과의 적극적 소통을 꾀하며, 보는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자신만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빛 조각의 특징과 열린 공간에서의 전시

빛은 예술창작의 원천이자 주요 모티프로 예술발전에 있어 큰 역할을 해왔다. 작가는 빛을 통해 사물의 크기나 색깔, 형태 등과 같은 시각정보를 객관적으로 취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예술실천이라는 일종의 지적성과를 창출한다. 회화의 경우, 빛이 있었기에 음영을 통한 물체의 입체적 표현이 가능했으며, 인간 내면의 감정과 이런저런 징후들을 극적으로, 상징적으로 연출할 수 있었다. 조각의 경우도 사물의 모상(模像), 즉 그림자를 실제적으로 자아내며 물리적 실재감을 효과적으로 창출했다.

어디 비단 예술뿐이라. 빛은 인간의 사리분별과도 직결된 주요 동인이었다. 빛이 있어 사물은 존재를 드러낸다. 빛이 있기에 우리는 사물을 인식한다. 빛없이 물체의 생김새나 가진 색깔 등을 분간하기란 쉽지 않다. 과연 볼 수 있는 세계는 빛에 의해 가능하고 그것은 또한 생각할 수 있는 세계를 가능하게 한다. 이렇듯 빛은 오랜 시간 인류의 인식작용과 지적발전에 있어 중요한 기제이자 요소로 작용했다. 빛이 인식 되는 것에 진리를, 인식하는 것에 능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식과 진리의 근원이라고 여겨지는 이유다. 과연 빛은 작가, 예술작품 그리고 관객 모두에게 성장과 생성, 지적영양을 공급한다. 지적성으로서의 예술작품에 대한 감상과 이해라는 수용자의 지적교감이 상호작용하며 자연이라는 객관세계에 대한 우리 네 인식은 발전한다.

주지하다시피 빛은 비(非)물질이다. 무게를 계량하거나 포획하거나 만질 수 없다. 신비로운 존재인 빛이 인지되고 지각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어둠을 필요로 한다. 무언가를 숙주(宿主)로, 또는 무언가와 더불어 존재가치를 발하는 빛을 활용한 이런저런 예술행위, 형식이 빛조각인 것이다. 빛은 오래전부터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그것은 주로 빛이라기보다는 불의 형식이었다. 어둠을 물리치거나 극복하는 기제이거나 두려움과 공포를 거세시키는 방식이었다. 불은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했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 이런저런 발명과 발견이 있어 왔지만, 그 중 가장 위대한 것 중 하나는 불의 발견일 것이다. 직립보행을 했던 호모 에렉투스(Homo erectus)에게 빛은 번개처럼, 섬광처럼 번쩍이는 찰나의 놀라움과 경외의 대상이었다. 벌겋고 뜨거운 엄청난 것이었다. 불은 두렵고 무서운 것으로, 오랜 시간 극복의 대상이었다. 인간이 불을 보다 쉽게 다루고 인간 주변에 두게 되면서 불은 인간을 보호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동물을 물리치거나 불을 본 맹수들이 근접을 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렇게 불은 두려움의 대상에서 인간친화적인 무엇이 되었다. 불의 발견은 필요할 때마다 불을 만들어 쓰는 일을 가능하게 했으며 마침내 인간은 불을 쉽게, 이롭게 사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인류는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할 수 있었다.

불과 빛, 불빛 이들은 모두 에너지다. 불과 빛, 모두 인간의 눈을 통해 관측이 가능하다. 우리는 불을 빛으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자 전시의 중요한 변수가 되었으며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가진 강력한 위협이 치료제 개발보다 우위에 있음이 드러난 이후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와 예상에 따라 재난상황이 지속되리라 판단했으며 이러한 위기적 상황을 서서히 극복할지라도 바이러스의 방역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는 관점을 우선하여 행사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노원달빛산책’을 관통하는 흐름에 당연하게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적 관점’, ‘비대면 방식’이라는 요소들이 깊숙이 개입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추가된 네 번째의 관점이다. 우리는 당현천의 전시공간을 애초 계획보다 3배를 확장하여 왕복 4km구간에 작품을 디스플레이 하여 관람객이 밀접하는 상황을 회피하도록 하였으며 전시제목에 ‘산책’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조용한 전시공간을 강조하였다.

노원달빛산책은 다변화된 도시 야간문화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예술로의 확장, 이입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성과도 맞물려 있다. 급변한 산업사회에 팽배한 야간도시의 유희성을 예술 문화적 전환으로 극복하려는 것은 어쩌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자극적이고 화려한 밤문화의 요소들이 지친 노동을 달래려는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유희를 제공하는 현실에서, 역설적이게도 획일화된 유희의 피로감이 문화예술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게 되었다. 인공적이며 차고넘치는 빛의 형식과, 그 규모 역시 일방향적인 빛공해로 인식되고 있다. 더하여, 코로나로 멈춰버린 시기에, 공공예술이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가에 대한 고민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노원달빛산책이 지난 문화예술 행사들의 반성적 출발점에서 예술적 전환을 시도하는 동시에, 예술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한 고민의 선상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매개로서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



로 인식한다. 쥐불놀이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이렇듯 빛조각은 어둠과 함께 한다. 빛을 발하는 형식이기에 내부에 일정한 조명, 혹은 등을 설치한다. 빛의 형태와 불의 형태를 통해 사물을, 대상을 인식하게 된다. 어두운 밤에 적외선 감지기를 통해 인지하는 일도 가능해졌다. 적외선 감지기에 투영된 이미지를 물감으로 담아내는 회화 작가도 있지 않은가. 모든 물질은 저마다의 빛을 발산한다. 물감도 그러하다. 우리는 빛을 통해서 사물을 인지하고 인식한다.

빛은 가시광선을 방출한다. 온도가 낮으면 적외선을 방출한다. 불이 그러하다. 온도에 따라 불의 색도 달라진다. 온도가 높아지면 자외선을 방출한다. 불은 유기물 등과 같은 물체가 산소와 반응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여러 형태로 발산이 되는데, 빛도 불의 에너지의 발산태 중 하나인 것이다. 이렇듯 빛은 에너지가 방출되는 수많은 파동 중 하나다. 이 파동들을 시각정보로 받아들이면서 사물의 색과 형태, 공간의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따라서 빛은 인간이 생활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유용한 기제다.

빛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입체조형물을 빛조각이라 부를 수 있겠다. 자연광, 혹은 단일 색감의 인공조명, 레이저와 같은 충전연색 빛이 사물에 투사되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작품의 내부에 이들 빛을 담아두어 그것이 외부로 발하는 기운을 강조하는 작업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그것들이 빛의 존재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거나 그 효과를 물리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일정한 대상, 구조, 틀 등을 필요로 한다. 일종의 숙주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또한 일정한 밝기의 어둠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사물의 생김새나 물체가 가진 색깔을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특히, 미술 활동에 있어서 빛은 중요한 요소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기가제가 속속 등장하면서 밝은 조건에서도 기능하는 빛조각 작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대낮에도 건물의 외벽에 빛과 영상을 개입시키거나 발산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 경우, 투사된 영상이 강조되는 경우와 투사된 영상에 의해 일종의 지지체 역할을 하는 사물의 3차원적 형태가 강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비디오아트와 비디오조각의 차이를 생각하면 좋겠다. 전자는 어둠을 필요로 하지만, 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밝은 공간에서 이미지보다는 매스(mass)가 강조된다고 하겠다.

인공의 형식으로 불을 담아낸 기제를 흔히 ‘등(燈)’이라 부른다. 사물 속에 빛을 숨기듯 담아놓아 등은 빛을 발한다. 어둠을 밝힌다. 빛은 등이자 등은 빛이다. 따라서 좁은 의미에서, 빛조각은 등조각을, 등조각은 빛조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페스티벌 등으로 불리는 서구의 빛축제와 한국의 등

축제는 차이가 있다. 빔프로젝터를 통해 나오는 광학적 빛, 레이저 등을 활용한 서양의 현란한 빛예술과 빛이 내부로부터 비롯하여 존재들과 더불어 세상으로 발하는 우리네 빛조각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서구의 빛축제나 행사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빛예술은 특정 대상에 비출 목적으로 계획한 이미지와 일루전을 현장에서 실연하는 것으로 그 빛은 외부로부터 온 것이다. 건물이나 대상으로서의 물체 등은 지지체(support)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것은 시각적 결과를 선사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일시적으로 존재한다. 이럴 경우, 빛은 건물이나 벽 등을 단순 지지체로 선택하여 기능한다. 건물이나 벽의 생김새나 기능, 표정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투사된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강조된다. 대상의 사물존재보다는 시각적인 요소가 지나치게 강조된 일종의 쇼(show)형식이다. 21세기 들어 스킨, 즉 건물의 외벽이나 허공을 가르는 레이저를 활용한 쇼가 대중을 이르고 있다. 백남준은 전자의 시대는 가고 레이저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과연 그의 예상은 이렇듯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일까.

앞서 말했듯 우리네 등개념의 빛조각은 내부로부터 빛이 창발한다. 그들이 자리한 틀로서의 사물이나 물체의 존재감을 강조하며 함께 드러난다. 모두 하나가 되어 물리적 현존으로 시공간에 존재한다. 일정한 볼륨, 양귀감을 갖는 독립된 매스 개념으로 존재한다. 예술이 인간을 숙주로 하듯 빛조각으로서의 등은 일정한 색깔과 형상을 지닌 매스로서의 틀, 즉 등을 숙주로 한다. 물리적 현존감과 실제감을 느끼는 생명체로서의 이야기 구조, 총체적 미장센이자 살아 움직이는 서사다. 또한 권선징악 등 희망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소통을 지향하는 상서로운 조각이다.

서구의 빛예술이 건물 외벽이나 사물에 트리밍(trimming)한 일종의 필름풀(film full) 형식이라면, 우리나라 빛조각은 이미지풀(image full) 개념인 셈이다. 서구의 그것이 밖에서 더해지며 세계로부터 사물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식이라면, 우리네 빛조각은 사물존재의 안으로부터 비롯하여 세계 속에 실존, 존재하는 것으로 형상을 통해 대외적으로 그 존재감을 발하는 것이다. 서구가 대상에 이미지를 표면(surface)에 투사(投射)하여 한시적으로, 일회적으로 존재태를 획득한다면, 한국의 경우는 내부로부터 빛을 발하는 것으로 생명체의 감각기관을 연상시킨다. 마치 몸 속 심장처럼 말이다.

또한 빛이 강조되기보다는 형상이 강조되며 빛은 보조적인 역할내지는 하나가 된 물심동체로서 존재한다. 움직임이나 구성에 있어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다. 한 몸인 것이다. 지지체가 단순 숙주개념으로 기능하기보다는 더불어 세상을 향해 발하는 것이다. 그것은 때론 고정되어 있지 않고 형상들이 물리적으로 움직이며 열린 시공간에서 대중과 함께 하는 보다 열린 구조를 취하는 것이다. 바람이나 사람의 힘, 전기모터, 햇빛 등에 반응하며 움직이는 일종의 키네틱(kinetic)한 특성을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밖으로부터 안으로 깎아 들어가며 원하는 형태를 끄집어내는 형식을 조각이라 한다. 반대로 안으로부터 밖으로 무언가를 더해가면서 바라는 형상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소조라 한다. 조소라는 말은 이 둘을 합친 말이다. 따라서 빛조각은 엄밀히 말해서 조각이라기 보다는 소조형식에 가깝다. 둘 다 무생물의 재료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소조형식의 빛조각은 타 형식에 비해 물리적/심리적 생명력이 압권이다.

빛조각은 공감 가능한,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 설화, 신화, 이야기를 풀어 놓은 틀, 이른바 프레임을 만들고 등을 설치한 후 종이를 붙여나간다. 또는 완성 후 등을 삽입, 설치한다. 조각조각 이어나간다. 결과적으로 빛조각은 환조의 형식을 취한다. 색을 칠하거나, 혹은 색지를 사용해서 일정한 색면과 색감을 갖는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현대조각에서 최초로 색을 사용한 작가는 미국의 조각가 도널드 저드(Donald Judd, 1928-1994)이지만, 작품의 표면이 아닌 형태 내부의 등이 발하는 고유의 빛과 재료의 다양한 색이 만나서 빛어내는 총체적인 환상적 효과가 빛조각의 특징 중 하나다.

서구의 경우, 건물이나 간판 등 기성의 구조를 지지체로, 스크린처럼 활용하여 빔프로젝트나 레이저 등으로 구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영상작업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많다. 2000년대 초중반, 주로 연말연시에, 국내에 소개되어 대중적 인기를 끌었던 루미나리에의 경우, 전원이 공급된 후 궁극적으로 드러날 구조형식을 만들고 거기에 전구 등의 장치를 설치해서 구현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프레임이 내부, 빛을 발하는 전구가 외부에 있게 된다. 빛이 안에 자리하고 있고 프레임이 외부에 있는 우리네 빛조각과는 차이가 있다.

서구의 빛축제나 우리네 빛조각은 성탄절이나 석탄일 등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문화로부터 이어진 현대적 결과물로 현재까지 민간이나 종교에 있어 기쁘거나 상서로운 무엇을 기념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공중에 매달리거나 도로 위를 활보하는 형식 일종의 퍼레이드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서구의 빛예술은 빛과 결과물로서의 작업이 분리되어 있고 지지체는 고정되어 있으며 빛이 이동하며 변화, 변위를 선사한다. 반면 등조각, 한국의 빛조각은 앞서 말했듯 빛과 결과물이 하나 구조적으로 한 덩어리이다.

빛조각은 제작, 설치에 있어 주로 용접술을 활용한다. 용접술로 현대조각의 풍요를 예비한 사람은 스페인 조각가 훌리오 곤잘레스(Julio Gonzalez, 1876-1943)다. 그가 세계대전 당시 르노자동차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며 자신의 작업에 용접술을 도입하면서 지금의 현대조각이 가능했다. 이후 다양한 현대추상 조각과 조각의 표면에 질감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하늘을 도화지 삼아서 다양한 철제드로잉을 가능하게 했다. 이른바 아상블라주(assemblage) 조각이 보다 쉽게 가능해진 것도 바로 이 용접 조

각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예술이, 각각의 장르가 발전하려면 재료의 발명과 새로운 방식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회화에 있어 유화물감의 발명을 보라. 빛조각은 용접술에 의해 일정 틀을 만들고 특정 형상으로 구조화한 후 바라는 질감과 색감, 표정을 잡아나간 후 등을 얹히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조각이라 하겠다.

다만 철제, 혹은 대나무와 같은 일정한 강도와 탄성을 갖춘 프레임, 한지, 투명아크릴 공업적인 대량 생산물 기성품을 사용 작품 내부에 전원을 공급받아 빛으로 발하는 전기장치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특히 수변이나 물속에 설치하는 경우에 방수, 누전 차단 등을 위한 특수 구조물이나 장치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좀더 세심하고 섬세한 기획과 제작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시공간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이해와 해석 등 촘촘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왕의 자연풍광과 구조에 익숙한 시민들에게 낯설게, 혹은 이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형식이나 방식을 지양하고 보다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설치형식이나 제작형식에 대한 고려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의 에치고츠마리트리엔날레나 한국의 금강자연비엔날레와 같이 작품이 설치되는 공간에서만 획득할 수 있는 자연물을 사용해서 제작, 설치하는 형식이나, 10년 마다 열리는 독일의 북부공업도시 뮌스터에서의 조각프로젝트처럼 가로등, 쉼터, 벤치 등 도시 내 필요한 공간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그리하여 사람들이 작품을 찾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는, 이른바 만듦새와 쓰임새가 하나된 경우의 방식도 고려하면 좋을 듯하다.

낮에는 햇빛, 밤에는 달빛이 빛조각을 밝히는 주요 동인이지만, 빛조각은 역시 밤이 제격이다. 빛조각의 미학은 밤의 미학이다. 이번 전시의 타이틀은 ‘노원달빛산책’이다. ‘노원’ 그리고 ‘달빛’과 ‘산책’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로 구성된 일종의 프로젝트성 전시로, 노원구 소재의 당현천, 당현3교에서 새싹교에 이르는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마련되었다.

사각의 전시공간처럼 가두어진 공간이 아니라, 활짝 열린 세상에서 펼쳐진다. 특정 형식과 특정 관객을 대상으로 한 폐쇄적 전시방식이 아닌, 생활한 공간에서 전개된다. 일상의 힘과 함께 하는 것이다. 표백된 공간을 벗어나 총천연색의 일상의 장, 현실 공간, 일상에 유연하게 개입, 녹아든다. 정교하게 계획된 좌표에 정착한다기보다는 무심한척 함께 한다. 톨레랑스(tolérance), 즉 관용적 태도를 보이며 서로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맞고 틀리고’와 같은 이분법적 공약수 중심으로 구성된 전시구성이 아니라. 다양한 형식과 이야기가 어우러진, 이른바 형식과 내용의 종다양성과 다양한 양태의 우리네 삶처럼 다양성의 통일을 경험할 수 있는것이다.

전통과 현대가 뒤섞인 한반도 평화의 언어

<노원 달빛 산책>은 ‘예술성 높은 등축제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도시 야간 예술 축제로서 수월성을 갖추기 위해’ 많은 계획과 실험 끝에 준비된 축제라고 한다. 야간 축제이자 야외 설치전사인 <노원 달빛 산책>속으로 실제 걸어 들어가보면 전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참여작가들의 적잖은 고민과 시도, 노력들이 함께 어우러져 이끌어낸 전시현장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번 축제의 핵심 참여 작가이기도 한 전영일의 평소의 예술관 ‘전통과 현대가 뒤섞인 한반도 평화의 언어’로 등축제에서의 등조각 위상을 구축해온 그의 신념을 오롯이 볼 수 있다. 그는, 가능하면, 전통 등축제를 동시대성을 아우를 수 있는 사회 환경 프로그램으로,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전통과 현대가 뒤섞인 문화언어로 발전시키고 있다.

한반도 평화의 언어이고자 하는 등조각은 예술성과 수월성이라는 어쩌면 서로 부딪힐 수 있는 개별 작업 내의 문화적 비전을 동시에 성취하면서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사실 이 비전은 등조각 자체의 기능적, 물질적, 물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늘 우선적으로 고민할 수 밖에 없는 등조각의 내용과 형식에 따른 특수한 문제 지점이다.

등축제와 등공예가 전통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쓰이던 방식과 등조각의 현대사회에서의 문화적 위상은 예술적 가치와 역할문제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할 때, 예술성과 수월성의 동시대 문화지평으로의 의미 있는 매개문제를 작가는 가장 중요시 한다. 한반도에서 이어져 온 관습적, 종교적 전통문화이자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일반 생활인들에 다가가는 동시대 예술조형언어로 보편적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등조각의 현대성 문제는 작가의 가장 큰 미학적 과제이다.

민족전통문화로 시대의 평화에 대해 암묵적인 말을 건네왔던 등조각은, 오늘날의 예술로서의 요구와 동시에, 예술의 수월성 문제도 전제해야 되는 당위를 내용과 형식의 바탕으로 내재하고 있다. 이런 요구들이 그의 예술가로서의 작업상의 고통이자 희망과 비전을 향한 담금질의 버팀목이기도 할 것이다. 자화상 <불가사리>처럼 내면의 예술적 불꽃으로 끌어당기고 밀쳐내는, 등조각 형태의 원심력과 구심력이 등표면에서 응집력으로 구체화되는 혹은 틀끓게 되는 미학의 형성원리일 것이다.

등조각에 대한 전통미감 체험은 민족공동체 전통에 대한 미감적 체험이다. 전영일의 등작업에서는 전통미감 체험을 보편화하고 동시대적인 미감이 특수한 것으로 개별화되어 동시에 공유되면서, 전통과 현대, 동시대는 평화의 언어로 묶여진다. 어둠속의 빛, 어둠 속에 둘러싸인 밝음, 어둠을 뚫고 나가는 생명의 힘으로, 시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는 생명의 불꽃으로 등조각은 관람객에서 다가온다. <생과 사>의 조화와

자연과 생태와 이질적일 수 있는 재료가 등장을 하기도 하지만, 기존 질서를 해치지 않으면서 유연하게 자리하여 해질녘을 시작으로 밤에 피어나는 야화(野花)와도 같은 것이다. 낮에도 물리적인 자태와 자연광에 반응하는 색다른 존재감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네 빛조각은 투명하다. 제법 덩치도 크고 두툼한 인상을 주고 있지만 사실 그것들은 가볍고 밝고 투명하다. 지나치게 광학적이거나 쎄한 느낌이 아닌, 외형적으로 건물 등 사물의 외벽, 표피 등에 얹고 가볍게 다소 현란하게 일시적으로 착상하는 것이 아닌, 물리적 현존으로서 존재감을 묵묵히 드러낸다. 생명의 약동, 작품과 관객 상호간 유기적인 기운이 매력적으로 교차한다.

열린 공간에서의 전시는 공간의 특정성과 함께 장소특정성, 의제특정성을 복합적으로 담아내는 생생한 현장감과 관객과 생활한 공간에서 함께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관객이 작품의 일원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살아 있는 현장감이 강점이다. 이른바 건강한 소통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이다. 전시장소의 특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서 보다 유연하게 자연에 스민다는 점이다. 또한 현장설치라는 강력한 야성과 부드러운 어우러짐을 특징으로 한다.

한국의 빛조각은 고유정신과 전통의 기운, 혼이 하나가 되는 뜨거운 장이다. 삶의 온기가 모여 하나가 되려는 바람, 따뜻한 기운이 중심 모티프다. 이번 노원달빛축제에 선보이는 빛조각 작업 중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키네틱한 작업도 있고 보는 각도에 따라 각기 다른 표정, 느낌을 경험할 수 있는 옵티컬(optical)한 작업도 있다. 출품작들은 서로를 간섭하지 않으면서 또 서로 어우러지는 총체적 미장센으로 관객의 개입을 용인한다. 작품과 함께 경험하는 배경으로서의 자연과 삶의 풍경은 기존의 삶의 시공간에 대한 이해와 그것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평화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연등행사는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그는 공동체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다.

등조각은 빛이 어둠을 뚫고 나가는 원리로 미감이 작동된다. 연등축제에서는 갈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 보인다. 연등 축제를 통해서 갈등은 잠시 평화 상태로 가라 앉아 보인다. 연등축제는 원래 전통에서 유래했지만, 전영일은 등조각을 동시대 역사 속에서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평화의 언어, 평화의 미감체험을 담보하는 상징물로 구축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야간 연등 축제는 주변이 전부 어둠이다. 그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개개인의 형상은 희미하지만, 그럼에도 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확신이, 그 공동체의 힘이 에너지가 되어 각자의 마음에 기쁨을 일게 한다.

전영일은 등은 도구가 아니라 현실에 끊임없이 연결되는 일종의 사회적 언어라고 믿는다. 아시아 전체의 전통축제로 계승되어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아시아 지역성과 개별 민족들의 민속성을 아우를 수 있는 상징예술이라고 인식한다. 등을 만들때도 그렇지만 완성된 등에서도 기능적으로 가장 본질적인 상징성은 불을 간직하는 빛이라는 지점이다. 등은, 그릇으로서의 불이자 불에는 혼이 담겨있다.

하지만 등은 노골적으로 자신의 불의 심지를 무한의 우주로 폭발적으로 뿜는 그릇이 아니다. 불의 자유가 하나의 형태에 모두어지는, 어찌보면 불에 가장 약하다고 할 수 있는 종이가 형태를 갖추고 불을 자신의 형태에 품게되면 하나의 등이 완성된다. 등은 어둠에서만 자신이 간직한 온기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다. 형태를 함몰시킬 수 있는 암흑의 공간에서 오히려 가장 빛나게 드러난다. 그는 이와같은 등 자체의 예술적 깊이를 발견하고 상업적, 대중적 사용을 넘어서는 등조각의 창의적 실험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한반도 평화의 언어로서 등축제의 전통과 미래에도 이어나가고자 한다. 그는 이러한 비전이 없이 그저 예쁘고 화려한 연등제와는 다른, 연등문화의 다른 내용과 형식을 찾고 있는 유일한 등작가이다. 그는 등축제는 시민 모두의 마음 속 평화의 불의 재현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에게 등불은 이 시대의 큰 예술적 그릇이다. 전영일 공방이 참가해 그간 해온 등축제 프로그램들은 작가의 이런 등에 대한 사고들의 진솔이나 다름 없다. 부처님 오신날 행사를 위한 연등축제이면서 사회적 거대담론으로서의 진리와 평화를 상징하는 연등들도 만들어 왔고, 불교 경전에 담겨있는 서사들을 인간에 대한 기본 이해의 중심으로 하면서 한국 불교가 강조하는 평화의 개념을 지금, 여기에서의 한반도에서의 평화사상으로 발전시켜 작업으로 번역해 낸다.

‘등’의 예술성은 등의 구조와 형태, 재질과 가능상에서의 구조와 기능의 조화, 형태와 재질의 조화 등, 부분과 부분간의 조화, 부분과 전체의 조화와 일체감에서 나온다. 부분과 전체의 조화는 사실 그의 작

품 <생과 사>에서처럼 삶과 죽음이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 생명의 언어로 탄생, 성장하는 모습과 동일하다. 그의 평화사상은 유기체인 나무의 형상을 빗대 자주 표현된다. 나무가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사계절이 지나가면서 온갖 변화를 겪으면서도 생명과 평화의 온갖 몸짓을 펼쳐내듯, 더군다나 달빛 아래 나무는 우주와 교감하는 마치 인간 정신의 채널인 듯 보이듯, 그에게 나무형상은 평화의 언어를 전달하는 핵심적인 소통수단이다. 작품 <푸른나무>는 무수(無憂樹)로 석가모니 탄생 설화에 나오는 나무이다. 토지의 주인이자 전쟁과 관리의 신수로 석가모니는 이 나무 아래서 태어나 천상천하유아독존을 외치게 되지만 결국 석가모니는 중생 모두는 존엄한 생명임을 갈파한다.

또 다른 나무 작업 개념은 한국 전쟁에 얽힌 이야기를 담는다. 격전지에서 아름답리 크고 있던 나무들은 그 땅에서 벌어졌던 치열한 전투, 그 전투로 피를 흘리고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피가 스며든 대지에 뿌리박고 계속 자라난다. 오늘날에는 한껏 푸르름을 자랑하는 나무들이지만 나무가 살아온 땅의 지층 속에는 역사의 흔적들이 층층이 토양이 되어있다. 전쟁의 슬픔을 먹고 자란 나무들, 부모 잃은 어린아이의 비통한 붉은 눈물을 먹고 자란 나무들, 땅 속의 붉은 피의 기운을 먹고 자란 나무들임을 기억하고자 그는 또 나무를 주제로 등을 만든다. 그리고 그 기억의 작업 속에서 나무형상은 한반도 번영을 위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사이자 예술의 언어로 자리매김 한다.



그림1_ 슬픔을 먹고 자란 나무

전영일의 실천적 평화사상의 조각관을 잘 드러내는 작업은 2018년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에서의 <평화, 비행을 시작하다> 프로젝트에 동참했을 때의 작업들이다. 그는 이때 군부대 비행기들이 날아 올랐던 곳 이자 군부대 주변의 위락시설들이 들어선 지역에서 <평화의 빛> 연등축제를 조직하고 ‘달빛공방’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등공예의 평화언어 체험 행사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전영일이 이번 축제에 출품한 <마스크의병> 과 <달항아리>도 같은 문맥의 작업들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발생 초기 노원구에서 최초로 마스크 의병단을 모집했다. 구청과 주민들은 함께 천과 필터로 마스크 생산해서 주민들에게 나눠 주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이런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작업이 그의 <마스크의병> 등 설치작업이다.

그럼에도 <달항아리>에서 그가 동시적으로 표명하고픈 생각은 달은 하나이지만 달을 보는 사람마다 달에 대한 기억은 다르다는 사실이다. 달은 각자의 마음 속에 서로 다른 감정으로 떠오른다. 사람마다 자신의 달을 품고 산다. 그는 인생의 이런 지점들도 포용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여긴다. 달과 함께 개인사의 기억도 각기 다른 아름다움으로 간직된다. 평화의 공감대가 쉽게 모두어 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전영일은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감독으로 예술가로 오로지 자신의 예술관이나 가치관에 대한 주장만을 관철시키려 하지 않고, 팬데믹 시대에 등조각 전시의 가능성도 실험하고 그러면서도 공동체 평화에 대한 이상을 살살 끄집어 내어 오늘날의 생활속 일상의 체험의 장으로 등축제를 한반도 평화의 언어들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는 장으로 구축해냈다.

이러한 자신의 역할이야말로 미술가의 올바른 사회적 직능이라고 그는 믿는다. 전영일은 개인 작업만이 아닌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안다. 주민들과 함께하는 미술, 주민참여 체험, 주민들과 함께 만든 보름달이 그의 예술성의 모든 것을 상징한다. 그는 이 시대 예술의 희망과 평화의 상징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내고 있다. 한반도 평화의 언어로 우리 시대의 예술을 끌어내고 있다.



그림2_ 평화의 빛



그림3_ 푸른 나무



그림4_ 마스크의병



그림7_ 자화상
불가사리, 그의 자화상은
세계의 갈등과 대립을
내면의 빛으로,
불꽃으로 지양, 융해시켜내는
생명의 에너지라는
의미를 지닌다.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문화

가_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의미

- 우리는 지금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뉴노멀)
- 집단면역이나 백신 보급 전까지는 현재의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삶을 영위해야 하는 시대
- 이번 코로나 19가 종식되어도 제2, 제3의 인류급 재난 이 올 수도 있다는 비관적 시대
-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종 바이러스 창궐 시대 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 내자는 의미
- 당면한 코로나 대응을 기반으로 미래 인류의 '재난사회' 대응력을 높이자는 것

나_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사회

- 국가 방역 체계를 기반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언택트형 일상이 지속되고 있음
 - 외생적 요인인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와 시민의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길 찾기가 계속되고 있음
 - 사회적 거리 두기 : 단순한 물리적 거리 두기가 아니라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이 취할 수 있는 최고, 최 대의 사회적 연대와 협력
 - 하루 세 번의 정례 브리핑 정착, 높은 시민 의식으로 가짜 정보(인포데믹)에 효과적 대처
 - 바이러스 봉쇄형 방역으로 방역과 경제 활동을 병행하 는 한국형 모델 정립
- *지역 봉쇄, 집단 면역

다_코로나19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 국가 + 시민 협력의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 구축 필요
 - 재난 상황에서 노출된 취약한 사회 구조를 넘어서는 새로운 포용사회를 만들어가야 함
 - 바이러스는 자체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역과 인간을 차별하지 않으나 우리 사회의 취약한 구조를 살살이 비추어 드러내는 거울 같은 기능 수행
 - 궁극적으로 인간 +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지 않으면 코로나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
 - 근대의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인간관, 우주 관 필요
- *더 빨라진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

2. 문화예술 분야 대응 상황

가_문화예술분야의 방역 대응과 과제

- 다중 이용 시설(공공 문화시설) 폐쇄와 개방의 반복
- 공공 문화시설 이용하는 예술 활동에 직접 영향
- 취소 또는 비대면 온라인 중계 공연 *계약의 유연성
- 민간공연장은 방역 기반 대면 공연 지속
- 공공 분야에서는 야외 공연까지 일괄 금지
-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맞춘 가이드라인 필요
- 지역 상황 고려한 가이드 라인 필요
- 예술단체, 문화시설 특화 방역 매뉴얼 필요
- 예술인 긴급 지원 시행,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시 행, 사업시행 기간 연장 등 다양한 대응
- 예술 지원, 예술인 복지 체계의 전반적 재구조화 필요

나_비대면 문화예술의 확산과 과제

- 비대면 공연의 여러 방식이 선보임
- 자동차 극장의 귀환, 발코니 콘서트, 드라이브 인 콘서트 등 오프라인 비대면 강화 공연
- 온라인 스트리밍,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의한 공연, 전 시 *다양한 채널 *문화예술 특화 채널
- 대면 공연의 가치 재확인 : 낮은 제작비, 직접 대면에 의한 교감, 원본 감상의 효용, 예술 생태계 다양성 강화
- 온라인 공연의 확산 : 국경/지역/공간 한계를 넘어 지 구적 확산에 새로운 기회,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새 로운 콘텐츠 개발, 플랫폼 문화? 슈퍼스타 집중화, 다양 성 파괴, 경제성 양극화 *BTS 온라인 콘서트
- 온/오프라인, 대면/비대면 배합과 융합

3. 지역축제의 방향과 과제

가_지역축제 대응 현황과 과제

- 대응 1 : 축제의 연기, 취소 *온라인 아카이브 전시
- 대응 2 : 지역/기간 분산 개최(“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대규모 이벤트를 지양하고 소규모 분산형 축제 로 전환, 춘천마임축제 백신프로젝트 사례)
- 대응 3 : 온라인 축제(온라인을 통한 전면 비대면 축제 로 진행,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관객 참여 방식 부족, 제작비의 증가, 유료화의 한계)
- 일상에서 시민 문화활동을 활성화하는 ‘생활문화’의 방향전환과 그에 기반한 지역 축제 필요
- 문화예술의 기술/미디어 의존 확대에 따른 기술 개발 및 지원 필요
- 뉴노멀에 맞는 유연, 적극, 창의 행정 필요

나_지역축제의 방향은?

- 방향 1 : 온라인 축제 개발 및 지원(오프라인 축제의 효과성을 온라인에서 실현하는 것이 중요, BTS 콘서트와 같이 대규모 시설과 장비, 고도의 기술과 연출 필요, 글로벌 축제)
- 방향 2 : 온/오프라인 병행 축제(준비를 포함한 축제의 전과정에서 온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대면을 최소화하되 축제 기간 프로그램에서도 온라인 콘텐츠 채널 적극 활용)
- 방향 3 : 소규모 오프라인 축제(지역 축제로서의 본질 회복. 시민이 기획하고 운영 실행하는 ‘진짜 지역축제’ 지역에서 함께 즐기는 축제 정신의 회복, 경제 가치로 환산하는 축제의 효용을 축제성의 회복으로 전환

>>>>> 1. 축제

축제	그리워하는 사람과 신이 서로 만나기를 기원하는 행사
祝祭	축하해서 벌이는 큰 행사
Festival	(보통 1년에 한 번 조직적으로 열리는) 축제, 종교적 축제

무엇을 그리워 하는가?

그리워하는 무엇,
기원하는 무엇,
삶 속에서 발견되기를 기원하는 무엇,
도시에서 새롭게 경험 하고 싶은 무엇,
나와 연결된 사람들에게 기원하는 무엇,
함께 나누고 생각하고 싶은 무엇,
그리고 그 무엇

>>>>> 2. 축제

가_비 일상적 경험

- 예술적 미학적 경험
- 성찰적 경험
- 함께의 경험

나_함께 만들어 가는 즐거움

- 시민참여, 시민주도
- 일상적 문화예술 활동 총합의 결과
- 주체화 과정에 대한 경험

다_커뮤니티 구성원으로 서의 소속감

- 나 되기로부터 시작된 우리 되기, 우리 되기로부터 시작된 나 되기의 경험
- 특정한 시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커뮤니티의 경험
- 만들어 가는 도시, 경험하는 도시, 우리의 도시

>>>>> 3. 빛 축제 | 한국의 빛 축제

가_제의적 성격

- <백제문화제>는 고대 동아시아의 문화강국 백제의 전통성에 근거하여,
- 백제의 수도였던 충남 공주시와 부여군에서 개최되는 역사문화축제
- 백제문화제는 백제 망국의 원혼을 위로하는 제의에서 시작된 조촐한 형태였지만
- 해를 거듭하면서 제의적 성격으로부터 종합문화축제로의 성격을 더해감
- 세계유산에 등재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무령왕과 왕비의 금제관식을 대형 조형물로 제작



<백제문화제>

>>>>> 3. 빛 축제 | 한국의 빛 축제

나_종교적 성격

- 불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믿고 있는 종교로서
- 삼국시대 신라 진흥왕때 시작된 연등축제가 오늘날 종교축제의 일환으로 변모되면서
- 불교인의 행사로 정착



<연등회>, 종로거리(동대문 - 조계사), 2019.05.03 ~05.05

>>>> 3. 빛 축제 | 한국의 빛 축제

다_관광적 성격

- <보성 차밭 빛 축제>는 매년 전남 보성군에서 녹차밭을 중심으로 개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
- 녹차라는 지역특산물 콘텐츠와 빛 축제를 결합해 군정홍보를 통한 지역이미지를 제고
- 보성의 지역특산물인 녹차를 통해 전시오브제를 형성하거나 녹차밭을 빛 축제 공간으로 전시화 하는 등
- 빛 자체가 전시화 되어 지역특산물을 홍보하는 효과를 가져옴



<보성 차밭 빛축제>

>>>> 3. 빛 축제 | 한국의 빛 축제

라_비동시대적(전통적) 성격

-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진주의 유형문화콘텐츠인 진주성과 남강을 장소로 선정
- 무형문화콘텐츠인 역사적 사건을 빛 전시 오브제로 형상화하여 축제를 구성함
- 대한민국의 역사 유적지라는 전통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전통성이 강한 유등이나 촛불을 주로 사용했으며, 진주성을 이용해 건물자체를 전시화 시킴



<진주남강 유등축제>

>>>> 3. 빛 축제 | 서구의 빛 축제

가_도시축제의 성격

- 도시는 교각, 공원, 놀이터, 강 등 수많은 공공시설물과 주거건축물이 함께 있는 우리 삶의 복합적 환경임
- 도시의 빛 축제는 3가지 목적을 가진다.
 - 지역민들의 화합 / 지역적 경제의 활성화 / 지역의 문화홍보

나_동시대적(현대적)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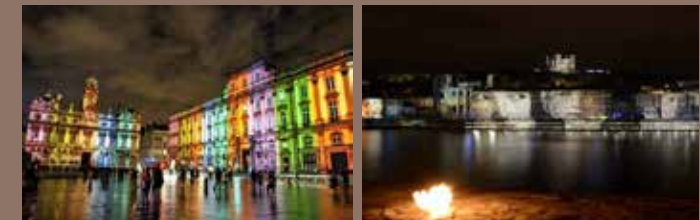


<DDP 라이트>, 2019.12.20 ~ 2020.01.30

>>>> 3. 빛 축제 | 서구의 빛 축제

다_도심 축제의 성격 - 일상적 공간

- 프랑스 리옹(Lyon)시는 별도의 오브제를 만들지 않고 도시의 건축물이나 거리, 광장 또는 강이나 산 등을 활용한 연출기법을 사용하기로 유명한 곳임
- 빛의 축제 기간 동안에는 마치 도시 전체가 캔버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시의 모든 구조물이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빛과 어우러지게 계획하고 있음



<리옹 빛 축제>

>>>> 3. 빛 축제 | 서구의 빛 축제

라_참여형 성격

- 프랑스 벨꾸르 광장에서 진행되는 관객참여 프로그램
-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랙티브 설치예술품
- 인터넷 이용자들이 www.lyonelevation.net에 접속하여 거대한 빛의 형상을 직접 그릴 수 있음
- 인터넷에서 참가자의 그림이 완성되면, 벨꾸르에 있는 작업실에서, 번호를 매기고 등록을 하게 됨
- 참가자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광장에서 혹은 광장을 보여주는 웹 카메라를 통해 직접 볼 수 있는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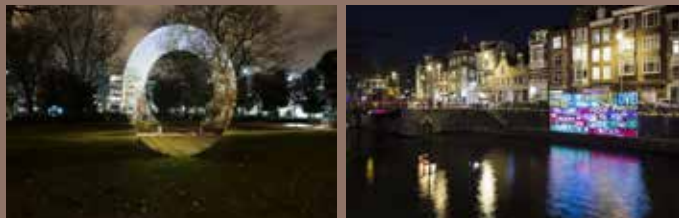


<리옹 벨꾸르 광장>

>>>> 3. 빛 축제 | 서구의 빛 축제

바_미학적, 예술적 성격

- 매년 겨울 열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빛 축제>는 전 세계의 예술가, 건축가,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작품공모를 진행함
- 시민들은 역사적인 건물, 공원에 설치된 작품 사이로 걸어 들어가 작품한가운데 서 볼 수도 있고,
- 움직임에 따라 빛이 변하는 인터랙티브 한 작품도 만날 수 있음



<암스테르담의 빛 축제>

>>>> 3. 빛 축제 | 서구의 빛 축제

사_융복합형 성격

- 매년 5월 말에서 6월 초에 개최되는 <비비드 시드니>는 호주 최대의 축제로 약 23일간 진행
- 조명장식, 조각품, 벽화, 3D 프로젝션 등 도시 어디에서나 오색 빛으로 치장한 화려한 시드니를 구성
- 오페라하우스의 돔 모양 지붕은 지속적인 변화를 주어 마치 건물이 살아 움직이는듯함
- 오페라 하우스, 하버브릿지 등의 관광 명소를 포함해 시드니 시티의 곳곳을 화려한 빛의 예술 작품, 다양한 영상을 담아내는 캔버스로 변신한 건물들과 설치 예술 작품들이 신비로운 장소를 만들어냄



<비비드 시드니>



<브뤼셀 빛 축제>

<벨기에 캔트 빛 축제>



<샹포로 빛축제>

>>>>> 4. 새로운 빛 축제

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새로운 예술적 미학적 경험을 제공하고
도심의 삶과 연계되어 있고, 도시 환경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도시축제로서의
모습을 가져가는 것

다양한 예술적 실험들이 도시환경과 밀접하게 결합되어서 시민들의 비일상적,
미적 경험들을 제공하고 도시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키워 갈 수 있도록 하는
예술축제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

전통적 소재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미적 경험들을 만들어가며
동시대의 미적 경험을 극대화 하고, 기술적 활용을 도모함으로서 당대적(Contemporary),
동시대적 축제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

>>>>> 4. 새로운 빛 축제

예술 축제로서의 빛 축제는

- 1. 도시 축제이며
- 2. 예술 축제이고
- 3. 동시대적 축제로 성장해야 한다

축제를 통해, 결론적으로

- 1. 도시환경의 변화가 가져다 주는 새로운 경험과
- 2. 예술적 심미적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영감과
- 3. 동시대적 예술적, 기술적 경험들을 극대화 하는 것

>>>>> 5. ‘노원달빛산책’ 기본방향 논의

축제의 기본 방향

구분	내용
도시형 축제	· 이벤트형 축제 지양 · 특정한 한 공간에 집약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중심과 도시 생활공간으로서의 주변을 아우르는 축제전략 수립 요구 · 도시-삶-문화예술을 연결시키는 축제모델 개발 필요 · 도시문화 활성화의 매개활동으로서의 축제
참여형 축제	· 축제 이전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조직화 · 일상적 문화예술 활동 매개활동들의 총합으로서의 축제 · 연간 시민활동의 총체적 결과물로서의 축제기획 · 일상적 활동의 비일상적 표현(경험)으로서의 축제기획
문화예술 축제	· 축제 이전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조직화 · 일상적 문화예술 활동 매개활동들의 총합으로서의 축제 · 연간 시민활동의 총체적 결과물로서의 축제기획 · 일상적 활동의 비일상적 표현(경험)으로서의 축제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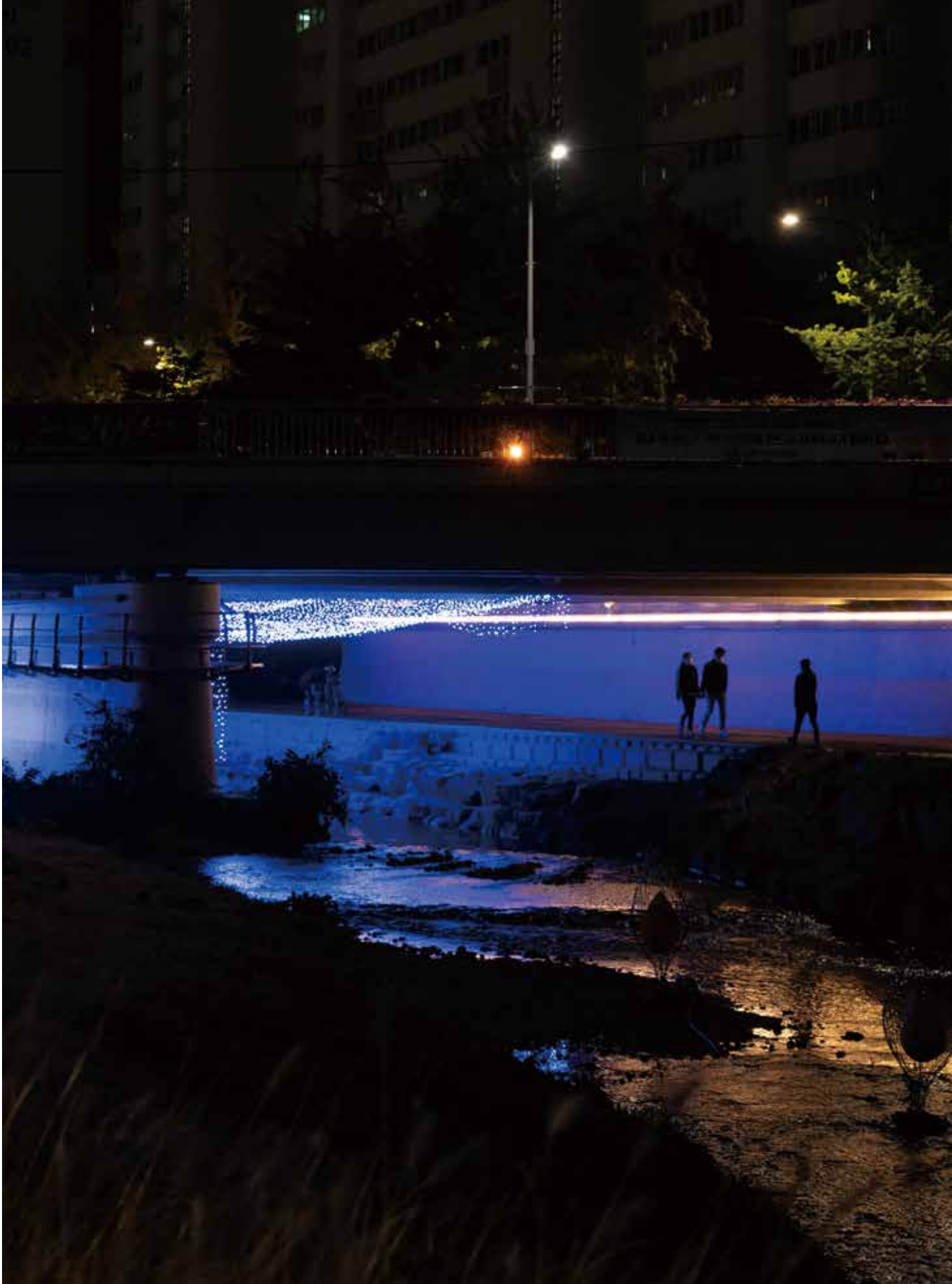
왜 ! 축제를 필요로 하는가?

구분	내용
도시 콘텐츠	· 도시내에서 생성되고 유통되는 대표적 콘텐츠의 가능성을 모색 · 내재적 관점에서 누구나 이야기 할 수 있는 도시 공동체의 매개가 되는 콘텐츠 · 문화-예술 활동으로 도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 콘텐츠
도시 브랜드	· 외재적 관점에서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전략 · 도시상징-도시이미지-도시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활동 · 문화예술교육, 창작등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되는 도시 브랜드 · 도시브랜드 역시 성장-소멸의 과정을 갖는다는 관점에서 함께 키워가는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만들어 갈 필요
시민의 문화 예술 참여와 향유 증대	· 도시 다양성, 시민의 이야기, 상상하는 미래를 담아가는 활동 · 창작, 제작, 문화예술활동 및 이야기 결합되어 있는 활동 · 문화적 활동이면서 예술적 활동 · 기억되고 기록된 도시이야기와 예술적 표현

>>>>> 5. ‘노원달빛산책’ 기본방향 논의

어떤 축제를 상상하는가?

구분	내용
과정에 기반한 시민참여형 축제	· 문화적 과정과 문화적 참여를 기획 · 시민력과 문화력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매개로서의 축제
도시축제로서 ‘달빛산책’	· 빛 축제 혹은 달빛산책은 도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도시의 풍경을 바꾸어 내는 '공공' 축제로서의 가능성 · 일상+문화+예술+참여가 가능한 축제
문화예술로서 ‘달빛산책’	· 창·제작의 과정이 공동체내에서 이루어지는 축제 · 등 만들기 등의 문화예술 교육이 일상화되어 있는 공동체 활동으로서의 축제 · 빛을 이용한 예술 활동의 산업적 가능성을 모색하고 실험하는 축제 · 작품을 통한 일상적 경험들이 교류 소통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해 가는 과정이 보이는 축제



2020
Nowon
Moonlight
Walk

사
람
·
사
람
들

한
글
서
체



구민해설사가 말한다

김남숙: 전달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을 자연 속에서 만나는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니다. 당현천은 예전과 다름이 없지만, 예술 작품으로 옷을 입은 당현천에서 우리 동네 주민들과 함께한 시간은 영원히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알고 있던 당현천은 산책하러 나가는 곳이 었다면, 이제는 달빛산책 작품 속 수많은 달들이 제 가슴에 스며들어와 작품이 있던 곳을 지나면, 저절로 발길이 멈춰지면서 달밤에 제 이야기를 들려주던 관람객의 모습에 달의 미소가 지어질 것 같습니다. 달 하나에 추억과 달 하나에 사람과 달하나에 가을밤 풍요로움이 남았습니다. 개막 전에 리허설 하던 날, 구청장님과 만날 출발 지점이 갑자기 바뀌어 전영일 예술감독님, 촬영 감독님과 숨이 턱에 차게 달렸던 일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네요. 전영일 감독님의 서글서글한 인상과 말씨는, 달을 보면 저절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포근한 기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앞으로 참여한 작가님들 개인전도 가려고 합니다. 작가를 만나는다는 사실에 더욱 가슴이 뛰고 설레었는데, 복도 많게 보라리 작가님, 서상봉 작가님, 인송자 작가님, 박건재 작가님, 이렇게 네 분이나 만나뵙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서 행복했습니다. 주최측도 이런 전시가 처음이라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세심하게 신경써주신 이수 큐레이터님, 문화재단 김가람 담당자님과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운영사 여러분, 많은 스텝분들도 모두 고맙습니다. 잊지 못할 것입니다. 30년 노원구민이지만 솔직히 고백하면, 리허설 하던 날, 구청장님을 처음 뵈었어요. 관심이 없었는데 친근한 이미지와 말투를 지닌 따뜻한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당현천과 달에 대해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병건: 감사합니다. 우선 멋진 행사에 함께 할 기회를 주셔서 행복한 추억을 또 하나 만들게 되었네요. 훌륭한 하신 분들과 새로운 만남을 갖게된 것도 저는 행운이구요. 사실 저는 미술 쪽은 거의 문외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 도슨트를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한지를 이용한 고품격의 작품도 많이 볼 수 있었구요. 그리고 '준치기법'도 알게 되었네요. 전영일 감독님, 인송자 작가님, 이수 큐레이터님도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세심한 기획에 감탄 했습니다. 무한한 발전과 함께한 여러 선생님들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함께하고 싶습니다.

백선관: 생각보다 주민들께 해설을 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런 뜻이 있는 줄 몰랐다. 작품이 주는 메시지가 감동적이다. 애기 듣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이다. 달을 보니 행복하다' 등등 — 작품들을 천천히 걸으면서 감상하실 때, 참 좋다고 하십니다. 올해는 더더욱 작품도 많고, 다양하고, 예쁘다고 합니다. —

3. 4회 중 3회까지의 도슨트를 마친 후 드는 생각은, 해설 프로그램 들으신 분께 작은 기념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달 모양의 열쇠 고리나 스티커 같은) 해설 마친 후 너무 열심히 들어주신 분들께 답례로 드릴 게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항상 있습니다. — 전시 구간이 길어서 1시간에 마치기는 힘들었습니다. 저는 늘 끝까지 완주했지만 1시 25분쯤 걸렸습니다. —

달빛산책 작품들을 보고 느낀 점을 적는 커다란 보드나 종이를 붙여서 주민들이 느낌을 자유롭게 적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올해 코로나로 행사시기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조금 덜 추울 때 행사가 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퀄리티 높은 작품들 너무 좋습니다. 단, 아쉬운 점은 우리구 작가의 등 작품이 없는 게 아쉽습니다. 등 전문가가 아니어도, 디자인이나 아이디어 협업 등이 지역 미술가들의 참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은 경험이고 실제 행복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자주 보고 작가님들도 뵙고, 예술감독님, 큐레이터님의 교육과 설명, 감사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

이수 큐레이터님의 두 번의 교육 좋았습니다. 그런데 구민 해설사들이 미술 전문가가 아니고 한두 번의 설명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고, 각자 개인적인 의견이나, 작품과 작가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설명이 흐를 가능성이 있으니, 실제 도슨트별 한 작품씩이라도 설명하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달빛산책 중 흐르는 음악이 그냥 흘러나오는 것보다는 노원구 소식이나 홍보 등 내용이 흘러나오고, 전시 한켠에 은은한 달빛에 맞는 공연이 소소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천: 여름부터 당현천이 조금씩 아름답게 변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았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추석 전에 구민해설사를 모집한다는 홍보물을 봤으며, ‘별을 구한 소녀’와 ‘소원;이라는 작품을 봤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관광통역안내사 과목을 강의 중이라 ‘해설사‘ 체험을 하면, 강의에 도움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하면서 신청했습니다. 전영일 작가님과 특별전 작가와의 시간을 통해서 작품 의미를 이해하니, 스토리텔링을 잘 하면 관람객들을 즐거움으로 이끄는 데 일조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1차 해설 (11/6). 1명 신청자도 안 와서 스태프와 가족만으로 해설을 시작했습니다. 해설하는 동안 몇 명씩 잠깐 들었는데 계속 안 오시더라고요. 첫 해설이라 정신이 없었는데 가족이 몇가지 피드백을 준 것 중에서 “함께 들으셔도 돼요”라고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2차 해설 시 그렇게 했습니다.(신청자만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 중간 이후부터 관람객 몇 분이 함께했고, 마칠 때 한 분 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네에 살아서 자주 작품을 봤는데, 이런 의미가 있는지 새롭게 알고 가서 너무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말씀해주셔서 애기를 듣고는 뿌듯했습니다.

2차 해설(11/7) 가족의 몇 가지 피드백(좀 더 짧게, 이동하면서 작품 설명도 좋다 등)을 포함해서 다시 준비했습니다. 다행히도 1차보다 많은 4명의 신청자가 있어서 기분 좋 게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이라 이동 중 사람이 많아서 다소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2번째라 확실히 진행은 자연스럽고도 빨리 했습니다. 저는 작품해설을 해서 못 봤는데, 스태프 선생님께서 관람객이 많아서 꼬리가 길다고 해주셔서 더 힘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작품 ‘내가 아는 너’까지 끝내고, 기념 촬영을 할 때 보니 관람객만 10명이더군요. 4명으로 시작했는데 10명으로 마치니 ‘내 해설이 괜찮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 촬영 후에 중간부터 들으셨던 몇 분이 오셔서 말씀을 건넸습니다 “혹시 당현천 내려가면서도 작품해설 해 주세요?”, “다음 도슨트 해설은 또 언제 하세요?” 등등 도슨트 프로그램이 유익했구나.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한 분은 따뜻한 음료를 주셔서, 또 한 번 따뜻한 노원구민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4차 해설을 앞두고(11/13~14) 1~2차에서 못 한 아쉬움을 좀 더 보충하고 싶습니다. 해설을 시작하기 전에 43개 작품을 2~3개 정도의 큰 줄거리고 연결해서 만들고 싶었는데.. 아직 일부 작품과의 연관성을 못 찾아서.. 아주 잘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남은 2번 동안 좀 더 완성도를 높여서, 오신 분들이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조금이라도

재충전하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코로나로 지친 노원구민들에게 문화적으로 힐링할 좋은 기회를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한정자: '노원달빛산책'은 공공미술 작품들과 작가들의 큰 의미가 더해져서 폭격 있는 감동으로 노원구민들에게 큰 희망과 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힘을 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구민 해설사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다소 낯설고 다가오기 어려웠을 텐데 해설을 들으면서 좋아하시는 참가자들 덕분에 추운 날에도 힘이 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도움을 주신 많은 스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황해경: 달빛산책 투어길은 버드나무 아래의 풍류와 추억 소환의 초가집을 시작으로, 구상나무의 생사, 쥐불놀이, 쫓불, 당현천 건너편 광고탑의 달,그 아래 달을 보는 이의 일렁이는 감정을 형상화한 메인 이미지 '빛에 머물다' 작품, 도시의 밤 하늘에 둥근 달이 차오르고 세개의 달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난다.

나는 이 부분에서 큰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다. 어쩔 이렇게 철저하게 완벽한 구성이 있을까? 달빛산책 전체와 세심하게 작은 부분의 완전체가 아름답게 조화되는 큰 감동을 느끼게 되었다. 병뚜껑을 모아서 탄생시킨 노원달빛산책 작품은 실생활에서 쉽게 버려지는 것이 빛나는 작품이 된 것을 바라보는 이를 감탄시키기 충분했다. 무슨 뚜껑이지 궁금궁 생겨 낯시간에 찾아와보고 각종 생수 병뚜껑과 헛반 그릇이 사용된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특별전에선 달빛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인송자 님의 '푸른달의 노래'가 너무 멋스럽게 표현된 것에 감동했고, 송필 님의 '길' 작품에선 '힘내라 대한민국'의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였다. 설치된 작품마다 감동이 없는 것이 없다. 미술관이 아닌 미술이 내게로 오고 내가 미술관에 쉽게 가보는 미술에 대한 높은 벽이 사라진 경험을 하게 되었다. 미술은 어려울 것이라고, 어렵다고 스스로 미술에 대한 벽이 있었는데, 생태계 공부를 했던 바탕이 미술작품을 쉽게 이해시켜 줌을 알고 재미있고 아주 흥미롭게 해설에 임할 수 있었다. 달빛이 주는 평온한 위안이, 달빛산책에 함께 했던 모든 이들의 마음에 내려 앉아, 아프고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며, 다시 한번 힘내보는 노원과 대한민국이 되어질 희망의 달빛 산책길이다.

2020 노원달빛산책과 함께한 사람들

2020년 ‘노원달빛산책’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하 무순)

주요스텝	
예술감독	전영일
기획실장	이유미
미술감독	임형태
큐레이터	이수
영상감독	변재길
기획담당	조비송
디자이너	김영철

특별전 작가
김건룡, 박건재, 박민섭, 보라리, 서성봉, 송필, 인송자
우주왕복선
선진정밀 이현만(대표)
동물 캐릭터 조형물
손장복, 김범수

전영일 공방
이현범, 이성열, 이동철, 심은희, 장지호, 허광표, 김문숙

전시개괄 아티클
이태호
전문가 세미나
한상정, 강성원, 박영정, 박천남, 이채관

구민 해설사
김기영, 김남숙, 김병건, 문희길, 백선관, 정상천, 주이현, 한정자, 홍문표, 황해경
퍼포먼스 연극인
강승민, 신철호, 이태건, 현대철
노원구마을미디어센터
우귀옥(이사장), 정정수, 채우석
제이케이 미디어
변재길(대표), 이찬용(영상촬영감독), 한상동(사진촬영감독)
조감도 팩토리
임찬빈(대표), 문혜영(이사), 신재영(팀장), 천수민(주임)
노원 수확문화관
장세창(관장), 유재희(팀장), 김기정(주임)

성서대학교
노원경찰서
나현주(경위)
노원소방서
이상민(소방장), 상계119안전센터

▶개막점등식
세컨드윈드 스테이지
안지형(안무, 연출), 유경진, 김진영, 김예원, 안지형(출연), 황찬용(촬영스텝)
카타
조용훈, 이경식, 신창모, 박아빈, 이빛나리, 박이지(코리아 상상예술)
수화통역
이지영(노원구 수어통역센터)
피플인파트너스
이상엽(대표), 우인기(연출), 이성욱(PD)

▶특별공연
한빛예술단
천성애(원장), 임진옥(사무국장), 김운식(부장), 이진희(팀장), 엄대용(기획), 한빛오케스트라 김종훈(지휘, 바이올린), 김창윤(유포늄), 김하연(건반), 김효선(트럼펫), 박민수(비올라, 베이스기타), 박영필(테너), 박진혁(트럼본), 손혜림(클라리넷), 심광보(타악기), 양한규(프로젝트 더밴드 리더, 건반), 임채림(바이올린), 윤석현(트럼펫) , 윤정선(바이올린), 이선용(트럼본), 이아름(보컬), 이은지(바이올린), 이인태(트럼펫), 임노훈(튜바), 한성우(드럼), 이경신(타악기), 송지후(비올라), 이승기(색소폰), 송재선(오보에), 이은복(호른), 김소희(호른), 황진철(유포늄), 김예지(클라리넷), 이영주(바이올린), 전용택(콘트라베이스), 김지호(보컬), 김동원(타악기), 이연진(플룻), 김나영(플룻), 권혜지(플룻), 이다은(바이올린), 김선호(브라스양상블 지휘자), 김영아(바이올린), 박동민(타악기), 왕원주(공연 연주자), 이대겸(사회)
노원음악협회
성대현(팬플룻), 황수정(소프라노), 권재연(피아니스트), 빈첸소 렌티니(테너)
이 솔리스트 서울

고성진(지휘자), 이진영(지휘자), 김성화(피아니스트), 고명산(소프라노), 엄규섭(기획)
테너: 강성찬,우필명, 조정훈, 김한모, 최호준, 신성면
베이스: 정동렬, 노시진, 홍승진, 고광석

▶행사운영
오피코리아
오세현(대표), 권오택(이사), 박형재(차장), 장준기(팀장), 서영석(팀장)
피씨오 커뮤니케이션
전기팀: 천수중, 김형준, 황정호, 천현준
아트라이트: 김진수
응급대기: 서울 129 구급대, 남기정(이사)
경호팀: 황순재(실장), 이송재(실장), 신유진(대리), 고성민, 황윤재
야간경비팀: 금거영, 강대훈, 김용희, 유제욱, 오인수, 김경현, 이정길, 윤병찬, 윤기영, 이제우, 강찬, 오충서
행사진행요원: 윤석현, 이준규, 김성원, 김대진, 서민수, 신상준, 강준현, 문예린, 최다빈, 김이슬1, 최정은, 정다희, 박윤정, 조재호, 방승호, 김대웅, 정재원, 홍은찬, 권순호, 주서영, 이유미, 임소연, 양우민, 김연재, 김은서, 채건영, 김혜연, 박희주, 양우진, 김우현, 하준현, 김민수, 임은지, 김수현, 서유정, 이영아, 최다해, 김이슬2, 정유경, 조서연, 이영도, 조광재, 탁해든, 송지수, 오지수, 안정미, 조민경, 김지우, 서숙영, 권수현, 박소영, 조소현, 김민형, 김민렬
해설사 프로그램 및 안내데스크 진행
공시윤, 김서윤, 김성민, 노규진, 노윤, 성민지, 신하겸, 양도훈, 오지민, 황예원

현장 운영요원
권소윤, 김상현, 송아름, 엄소민, 윤나현, 윤소현, 전화승, 정윤주, 조동빈, 최민옥, 최하나울, 황세빈, 황지수

재단지원 운영요원
송주영, 이재영, 조정수, 조현영
재단지원 운영요원
송주영, 이재영, 조정수, 조현영

▶노원구청
최미숙(행정지원국장), 박영래(기획재정국장), 최광빈(힐링도시국장)
문화체육과: 안태유(과장), 양현웅(문화예술팀장), 김지연, 정다정, 김정식, 이승윤(문화정책팀장), 박상훈, 김수정, 김윤선, 김하람, 김수연, 문정수/신호재(체육정책팀장), 예규해, 오수진, 장마리아/민선희(체육시설팀장), 조재형, 권종민, 오시영, 김기연
자치안전과: 최용록(과장), 송창훈(자치행정팀장),

송재혁(재난안전팀장), 강성민
미디어홍보과: 한주석(과장), 장주현(언론팀장), 방희진, 엄창현, 김유신, 조윤희, 류재현/이상수(홍보팀장), 이진의, 양은정, 정용채/ 명제성(영상홍보팀장), 서형철(PD), 문수경(아나운서), 백종현, 민경주, 김인형, 윤정록, 정정수/채우석(노원마을미디어지원 센터), 정창호(스마트도시팀장)
감사담당관: 홍성범(감사담당관), 손승국(감사팀장)
교육지원과: 강현숙(과장)/ 장세창(수확문화관장), 유지희(운영팀장), 김기정(전기)
교통지도과: 장재훈(과장), 김배윤(주차지도팀장), 천세진(주차지도팀)
자원순환과: 신준선(과장), 남광원(관리팀장)
치수과: 이충신(과장), 김상동(물관리팀장), 전기훈, 박인선/이영호(하수팀장), 하성호(하천설비팀장), 한현재, 김승철/정집권(당현천 관리반장)
푸른도시과: 이용수(과장), 안소연(하천조경팀장), 김윤희, 박유하/김혜량(조경팀장)
공원여가과: 이명숙(과장), 김민서(여가운영팀장), 김보민
보건위생과: 박명숙(과장)

▶노원문화재단
김승국(이사장), 원응호(사무국장)
축제사업부: 홍철욱, 김가람, 윤혜인, 김준
행사총괄담당: 2019-2020년 김보영, 박한준, 서지희, 김가람
행정지원부: 박창순, 최승이, 오진호, 고자영, 김보은, 백승표, 서혜연, 도용현, 허종국, 국영일, 범선민
공연전시부: 김광득, 김혜련, 김보영, 락규태, 최종희, 정경희, 이지미, 김한나, 김춘술, 박지예, 김광훈, 정인철, 장은응, 김영일, 이승용, 임기택, 박소현
정책기획부: 김성곤, 김유미, 김용식, 이수연
문화진흥팀: 윤금노, 박기건, 박한준, 유현선, 황혜진, 김수연
도서관정책실: 윤정환, 김명섭, 마연정, 김명옥, 박정환, 신나리, 장유림

그리고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윤학수 서울시 동부사업소 조경과장
(코스모스 화분을 지원해주셨습니다)
김도형 노원원극협회장
(퍼포먼스 연극인들을 소개해주시고 지원해주셨습니다)
성서대학교 이은광 님 (큰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시민기자단, 구민감사관, 힐링노원 살피미
(모니터링 해주셨습니다)

2020
Nowon
Moonlight
Walk

노원달빛산책

2020. 10. 23 - 11. 15

주최/주관 노원문화재단

기획 전영일, 이유미, 임형태, 이수

진행 홍철욱, 김가람, 김보영, 박한준, 서지희, 윤혜인, 김준

협력 노원구청, 성서대학교, 국민은행

사진 변재길, 한상동, 이찬용

디자인 (주)에이지아이소사이어티

인쇄 한국학술정보(주)

발행인 김승국

발행일 2020. 12. 20

발행처 노원문화재단

01736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181 노원문화예술회관

주최/주관 :  노원문화재단 후원 : 노원구  화정노원  KB국민은행 협력 : 한국성서대학교

© 노원문화재단, 2020 | NOWO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20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작품 이미지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can be reproduced in any manner without the prior writing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s.